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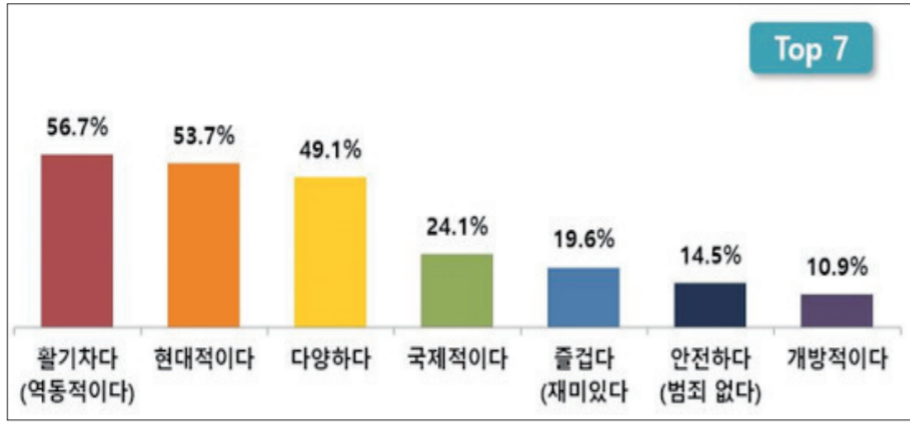
서울시 브랜드 'I-SEOUL-U' 5주년...시민 인지도 88% 호감도 75%

서울시민 1천500명 대상 서울브랜드 'I-SEOUL-U'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는 서울브랜드인 "5주년을 맞이해 서울시민 1천5백명 대상으로 인지도 및 호감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가 전문조사기관 (주)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시민 20대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분석했다.

올해 다섯돌을 맞이한 서울브랜드에 대해 일반시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인지하고 있었다. 주된 인지 경로는 'TV,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 뉴스 등을 통해서',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서울시 관련 행사나 홍보물, 조형물 등을 통해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브랜드 인지도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로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실생활 속으로 깊숙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브랜드 호감도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로 나타나 "가 갈수록 시민



들에게 더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어울리는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는 활기차다·역동적이다, 현대적이다, 다양하다, 국제적이다, 즐거운도시 등을 꼽았다.

향후 서울시민이 바라는 서울 이미지는 안전하다, 여유롭다, 안심할 수 있다, 국제적이다, 아름답다 등으로 나타나 서울시민들은 우선적으로 서울이 안전하고 여유롭고 안심하는 국제적인 아름다운 도시로 비춰지기를 바랐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서울시 방역시스템에 대한 조사에서는 71.7%가 코로나 방역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감염방지 및

확산차단 정책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금년 서울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호감도가 상승한 것은 서울시의 코로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며 본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도시 이미지인 안전·여유·안심·국제화·아름다움 등을 서울 브랜드 정책에 잘 담아 서울이 글로벌 안전도시이며 여유롭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국제적 위상 제고와 시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응원 멋글씨 공모전 입상작 전시

부산시는 11월 16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연결통로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응원 멋글씨 공모전'의 입상작 20점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와 함께 8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29일간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이 응모해 156점의 작품이 접수됐다.시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상작 14점을 선정했으며 입상한 우수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는 멋글씨는 '네 꿈 내꿈,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대한민국 월드엑스포 유치, 기다림이 행복하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응원한다' 등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고 응원하는 문구로 부산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부산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현재 '모고마크 디자인 공모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유치응원 캠페인', '삼천어묵 스킨 크래치 쿠폰 증정 이벤트' 등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산 기업인 대선주자(주), (주)세정, (주)대우 등 여러 업체와 협업 사업을 통해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응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내년 국제박람회기구에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신청에 앞서 대국민 공감대 확산과 국민의 열망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며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이 함께 누릴 특권인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남영경/기자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응원
멋글씨 공모전
입상작 전시
전시기간
2020. 11. 16. (월)
~ 2020. 11. 20. (금)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사랑의 헌혈 생명 나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감사패 수상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월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부족한 혈액 수급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이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간담회를 가졌다. 공단은 2013년 9월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생명 나눔과 실천을 약속하는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봉사인증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기부문화 확산, 생명 나눔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2020년도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는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부족한 시기에 공단 임직원들이 총 5회 걸쳐 223명이 헌혈에 참여하고 170명의 헌혈증을 기부하는 등 헌혈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생명 나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는 한편 반부패 청렴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해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과 청렴도 향상에 노력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헌혈 운동 참여로 부족한 혈액수급 해소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더 나아가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관계자는 "사랑의 헌혈을

통한 공단 임직원의 소중한 노력이 감사패를 수상하게 된 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헌혈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 나눔 실천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생명 나눔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근/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주요현안사업장 밀착 현장행정 펼쳐

연말 추진물 제고 등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주문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6일까지 4일에 걸쳐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장 원원이 함께 참석해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물 및 완성도를 제고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강구로 시장의 올바른 정책방향 결정을 위해 실시했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현장방문은 금암공원 조성사업, 옛 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남원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허브밸리 관광산업 구축사업,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 개량사업, 도시재생사업, 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추진 중인 대규모 현안사업장 14개소에서 진행됐다. 사업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됐다. 사업장을 찾은 이 시장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상황속에서 사업장 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제점에 대해선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감동 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현안 관련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의견 청취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서울농수산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문제와 경매제도 개선문제,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과도한 이익추구와 공공성 훼손 문제,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서울농수산물공사의 재정부담 가능성, 가락e몰과 스마트몰의 활성화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채인목 위원장은 “가락시장은 국내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이다.

생산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대립이 심하고 국내 농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35년간 경매제로 운영되어온 가락시장의 거래방식을 일거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농수산물공사에 “소비자와 생산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의 현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시간을 가졌다.

의견청취는 이해관계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서울농수산물공사 집행부를 이석시킨 후에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도매시장법인 대표 1명, 중도매인 대표 2명이 각각 의견을 말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대표인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는 시

장도매인제도 도입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생산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과부류 중도매인을 대표한 이현구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수산물 도매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산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산부류 중도매인을 대표한 최영현 가락시장 수산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수산물 도매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산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市 도시생태환경지도 제작에 도의 적극적 역할 및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13일 진행된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 제작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생태환경지도란 자연환경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서식지 경계를 지도화한 자연환경공간정보이다.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전국 모든 시에서는 도시생태환경지도를 작성하고 5년마다 작성할 의무를 지는데, 경기도내 작성대상인 28개 시 중 작성이 완료된 시는 겨우 3곳에 불과하다. 안기권 의원은 “현재 추진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시에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의무를 부여했다고 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고 지적하

면서 “만약 어떤 시가 중요한 유급지에 대한 생태보전지역을 임의로 표기할 경우 표기한 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데, 이것은 큰 문제”고 우려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특성 상에 맞는 세부내용의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사례가 있는바, 경기도도 광역규모에 맞는 생태조항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생산물 공급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를 일컫는 ‘생태계서비스’와 ‘도

시생태환경지도’를 크로스체크하면 보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권 의원은 “생태계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지점이 되는 중요한 지표”고 하며 “이 생태계서비스와 앞서 언급한 도시생태환경지도를 크로스체크하면 보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 조례에 경기도의 특성 및 현황을 반영한 세부지침 마련 도시생태환경지도와 생태계서비스의 크로스체크를 통한 보완을 제안하고 정부, 지자체, 전문가 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시 뿐만 아니라 광역차원의 도시생태환경지도 제작 및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박상찬/기자

김소영 의원, “120다산콜재단 서비스 실적 저하 원인 특별휴가, 병가 남발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의원이 지난 11월 12일 진행된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비스 실적 저하의 원인을 인력 부족에서 찾은 다산콜재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120다산콜재단은 지난 5월 코로나로 인해 인입량이 폭증하자 112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하 있다. 그러나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는 인입량이 점차 전년도 수준을 회복했으며 7월에는 19년도 인입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영 의원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재단에서 일시적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자구책을 찾는 대신, 시민의 혈세로 인력 증원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큰 문제다”고 비판하며 연결 지연 혹은 불가로 시민 불편 민원이 늘어난 이유가 정원 부족 문제에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김소영의원에 따르면 작년 1월 120다산콜재단 단체협약에 장기재직휴가 조항이 신설되자, 직원 75명이 최소 2일에서 5일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다. 심지어 올해는 코로나 관련 문의로 재단에 전화 상담이 폭증해 인력증원까지 검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1명이 최소 2일에서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다녀왔다. 한편 14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 장기재직휴가 열흘을 다녀온 직원도 4명이다. 됐다.

이는 120다산콜재단이 재단화 과정에서 상담사 전원을 고용승계 하면서 이전 민간위탁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이다. 이에 퇴직금 또한 이전 근무경력까지 근속연수로 계산돼 적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다산콜재단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김의원은 노조가 기본급 15.1% 인상, 감점노동수당 신설, 병결휴가비 신설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데, 시민들이 재단 직원들의 특별휴가와 병가 사용 실태에 대해 알면 120다산콜재단 존립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소영의원은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무리 단체협약상 60일까지 유급병가가 명시되어 있어도, 병가가 생활화되어 있는 조직은 드물다. 그러나 120다산콜재단은 매년 직원 1/3 이상이 병가를 쓰고 있다. 최근 3년간 재단의 병가 사용 현황을 보면 18, 19년에는 한 달 이상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20명이 넘으며 올해도 19명에 달한다. 또한 60일을 다 사용한 직원도 매년 네다섯명 정도 된다. 김의원은 “물론 사고로 다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다른 조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왜 유독 120다산콜재단에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는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120다산콜재단의 서비스실적 저하의 원인을 인력부족에서 찾지 말고 재단이 직원에게 남발하고 있는 특별휴가, 병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의 재단화를 추진했던 시민소통기획관에 “단간 업체에서 채용했던 인력을 퇴직금 정산 없이 서울시 산하 재단에 신규채용 하도록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하며 법률 검토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박귀성/기자



이혁제 도의원, “교육감은 공평하고 노조는 자중하길”

전남교육청 교원, 일반직 간 갈등 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은 13일 전남남도교육청 본청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 톨스크린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장석웅 교육감의 ‘시기 일전’이라는 답변에 일반직 노조에서 ‘편가르기’라고 맞받아쳤다”며 교육청 내직렬 간 갈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혁제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인내하고 자중해야 할 이런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이런 내용의 성명서가 오갈 수 있느냐”며 “전남교육청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위원회 본인도 노심초사하고 불안한데 구성원 간의 내부충질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나”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교육감 레임덕 현상이 온 것 아니냐 할 정도다”며 “교육감은 좀 더 공평하고 노조는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교육감인데 어떻게 일반직과 전문직을 차별하고 편을 가르겠느냐”며 “취임 이후 각 과별, 전문직·일반직간 벽과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걸 이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답변했다. 특히 “2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지역청 행정과장들은 물론 하위직과 여성공무원들이 참고인으로 불러져 갖은 수모를 당했다고 들었다며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노조의 편가르기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노조의 편

가르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이혁제 의원이 “일반직 노조에서는 톨스크린 비리사건의 최종 책임은 지역청 계약담당관인 교육장이라고 주장한다. 교육감도 동의하냐?”고 문자 장석웅 교육감은 “성명서 내용을 보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전남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교육감이 지난 11일 무너진 전남교육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시기 일전에 함께 나가자는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이 담화문에 따르면 현재 전남교육 신뢰의 위기를 톨스크린 납품비리 수사 결과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일반직과 교원 간의 편가르기”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에게 책임이 있는 최근 4건의 전남교육청 신뢰도 추락 사건을 공개하면서 전남교육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원 위주의 우대정책을 멈추고 일반직공무원이 소신껏 근무할 수 있도록 학교장과 교육감을 제대로 지휘 감독하라고 주장했다. 이혁제 의원은 “교육감은 공

평한 인사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일반직 입장에서보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인사정책을 살펴보고 좀 더 공평하게 했으면 한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또한 이 엄중한 시기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덕윤/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시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혜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 페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 031.984.8245

디자인다해

디자인다해를 검색하세요

디자인다해 since 2013

www.designdahae.com

2020 서울국제관광박람회, 전국에 순창을 알렸다

전라북도-순창 관광홍보관 공동 운영

순창군이 전라북도와 함께 12일 서울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2020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서 관광지 홍보에 열을 올렸다. '2020 서울국제관광박람회'는 ㈜코스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지난 9일부터 4일간 열렸으며 전체 560여개 부스가 차려지며 관광사업 홍보 각축장이 됐다.

전북도와 순창군은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숨겨진 관광지, 언택트 관광지 등을 홍보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이번 부스를 마련했다. 특히 순창군은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선정 2020 숨은 관광지인 재계산 출렁다리를 비롯해 전북 투어 패키지 가능한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강천산 등을 집중 홍보했다.

또 고추장 고유의 맛있는 먹거리

와 체험농가 등도 소개해 지역이 생각하는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렸다. 여행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부스를 방문해 순창 곳곳의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심도있는 문의가 오가며 향후 팸투어를 위한 순창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군은 홍보부스를 방문한 관람객과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위해 장류세트 물렛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며 순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순창군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안전하고 청정한 지역, 구석구석 볼거리가 많은 농촌 체험 관광지, 순창으로 오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세계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많은 세계인이 올 수 있도록 방역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벤트
여주사랑카드 소비지원금 지급 이벤트

20만원 이상 사용자 지원! 2020년 11월 16일 ~ 11월 30일까지 누적 20만원 이상 사용 대상자 100명을 추첨하여 여주사랑카드 충전포인트 5만원 지원

20만원 이상 충전자 지원! 2020년 12월 1일 ~ 12월 7일까지 누적 20만원 이상 충전 대상자 100명을 추첨하여 여주사랑카드 충전포인트 5만원 지원

우대(할인)가맹점 결제 이벤트 2020년 12월 8일 ~ 12월 15일까지 여주사랑카드 우대(할인)가맹점에서 결제한 이용자 중 100명 추첨하여 5만원 지급

당첨자 발표 12월 15일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지 및 경기지역에 발송 할인 PUS+ 알림 메시지 전송

문의 여주사랑카드고객센터 031-887-2273 031-887-2978

주의사항 *당첨자에게 추첨사실은 내역은 이벤트에 별도 공지 합니다. *사용 중인 이벤트는 중복신청 되지 않습니다.

서산 절임배추가 있어 김장 어렵지 않아요

맛과 영양 풍부, 아삭한 식감의 서산절임배추 인기몰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서산 절임배추가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서산 절임배추는 서해의 갯바람을 맞고 자라 속이 알차고 풍미까지 좋은데다 가로립만 청청해수와 천일염으로 절였기 때문에 쓴맛이 없고 영양이 풍부해 짠이 많다.

특히 택배 주문하면 알맞게 절여진 배추가 배송되고 가정에서는 버무리기만 하면 김치를 완성할 수 있어 김장을 주저하는 신세대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7개 업체에서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있으며 업체별 일일 50~80건의 택배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지역 절임배추는 20kg 기준으로 택배비 포함 3만 5천 원에서 4만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판매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역시 자체 쇼핑몰 '서산프레'에 절임배추 상품을 내걸



고 업체 지원에 나섰다.

인터넷 검색장에 '서산프레'를 치고 접속하면, 12월 10일까지 5%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임종근 서산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좋은 김치는 좋은 재료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쉽게 무르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서산 절임배추를 많이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부천시, '보행자의 날' 맞이 안전 캠페인 활동

안전한 보행 활동 계도뿐 아니라 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 방법까지 홍보

부천시는 지난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모빌리티 안전 운행과 보행문화 개선을 위해 상동역, 부천 시청역, 신중동역에서 '보행자킴이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수요가 증가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경찰서 서비스기업, 시 관계부서 보행교통지킴이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여했다. 시는 그동안 보행시민의 편의 개선을 위해 내·외부의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무질서한 PM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역사 출입구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역점에 킥보드·전기자전거 거치대와 주차존을 설치했다.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에 참여한 킥보드 서비스기업은 보행자 발견 시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내년 부천시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최근 사용 빈도가 높아진 모빌리티의 안전 문제를 미리 고민하고 반영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 실현에 앞장서길 바

란다"고 당부하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시민들은 안전하게 보행하고 PM 등의 녹색 교통수단은 배려하며 상호공존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방송 '건강은 자연을 e- 지켜줄 고양' 진행



농업인과 고양시민이 소통하는, 신개념 언택트 마케팅 행사로 주목 받아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산물 언택트 마케팅의 일환으로 '건강은 자연을 e- 지켜줄 고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센터 내 열대생태온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유통 비용이 과도한 대형유통 마트의 매출량이 감소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하는 사회 경향에 맞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양시 농산가공 제품을 홍보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시

도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인 '건강은 자연을 e- 지켜줄 고양'은 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자연올' 브랜드 제품 총 37종을 전시하고 도깨비부여 영농조합법인 외 총 9농가가 함께 참여해 제품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선우별과 등 농산물 가공창업반을 수료하고 단독 가공제품 브랜드로 창업한 농가 제품 10여종도 전시, 판매됐다.

특히 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단체인 압화연구회와 꽃차연구회에서는 압화·꽃차와 '자연올' 플라보 선물 세트와 압화 성탄절 소품, 꽃차 무지개 우유펀 100잔, 꽃 월병 등을 현장에 준비해 행사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열대 생태 식물원의 싱그럽

고 푸른 녹음과 고양 화훼농가의 포인세티아, 국화와 함께 어우러진 농산가공품과 화려한 꽃들로 셋팅된 테이블 장식 등은 간간히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힐링을 선물했다.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송세영 소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비대면 농가 상담 등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고양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전시·판매 행사를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라이브 커머스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행사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안동시, 2021년 문화재 활용 및 홍보지원 사업 14건 선정

삼속에서 누리고 가꾸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두 배로

안동시는 문화재청 공모 사업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문화재야행 1건, 생생문화재 1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3건, 고택·종가집 활용 1건이, '세계유산 활용사업'에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 3건,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 4건,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사업 1건 등 총 14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재와 세계유산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를 콘텐츠화해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하회별신굿탈놀이 활용한 '탈 쓰고 탈 막세'가 7년 연속 선정됐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와 서원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 시작한 '꼬마도령의 놀이터-목계서원'은 3년 연속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2021년 지속발전형 사업으로 재선정 됐다. 2020년에 시별 육성형 사업으로 시작한 도산서원과 병산서원도 2021년 사업에 재선정 됐다. 도산서원 참알기 해설 및 알묘 참여, 청소년 인성체험과 서원 문화탐색 등의 사업으로 도산서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산야행, 인문캠프 및 해설사 운영, 목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고 전통문화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콘텐트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5년 연속 선정되어 내년에도 월영교 일원에서 '달빛아래 안동의 문화재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은 고택·종가집의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고택·종가집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고택 임청각 활용사업인 '임청각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다'가 2년 연속 선정됐다.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방문객들이 공유·체험하게 해 지속 가능한 방문객 유치와 세계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계승해 나가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각 세계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반영한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사업은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한국의 유교책판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학술포럼과 인문학콘서트, 글로벌 세계유산 탐방, 유교책판 활용 전문가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며 그 외에도 세계유산 사진전, 유교책판 순회전시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이 핵심 관광자원으로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지역 전문인력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등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꾸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장흥군·익산국토청, 생명의 탐진강 만들기 성과 '윤곽'

30년 숙원사업 연산급커브길 구간 정비 준공 앞뒀

장흥군은 지난해 '생명의 탐진강'을 만들기 위해 강진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맺은 업무협약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해 6월 27일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생명의 탐진강'을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했다. 업무협약 이후 부산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준공을, 장흥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7년 11월부터 부산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106억원을 투입해 제방보수 1.96km, 자전거도로 7.63km, 보개량 2개소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올해 연초부터 교통사고가 잦고 병목현상이 심한 연산마을 급커브구간 확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얻었다. 이후 공사가 95% 이상 완료돼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장흥읍 장흥교부터 강진읍 남포리까지는 장흥1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총사업비 323억원을 투입해 제방보수 2.4km, 자전거도로 10.9km, 보 4개소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흥군도 2020년 한해 아름다운 탐진강을 만들기 위해 국비 4억 2000만원과 군비 10억원 등을 투입해 정남진산업고에서 구 부산교간 제방도로 유지보수, 탐진강 다목적정장 포장, 정하아파트 앞 진입도로 확장 및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를 통해 지역민의 휴식 공간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6월에는 탐진강 아이템 용역 결과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용역과 연계한 감성, 디자인, 체험, 치유, 소통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 중에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장흥군과 강진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탐진강유역 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



고 연산마을 급커브구간 정비사업은 업무협약의 최초 성과물로 나타났다"며 "30년이 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모두가 힘을 쏟고 그 혜택이 장흥군민에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장흥군의 보물인 탐진강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정길기자

거창전통시장을 이용하시면 장보는 즐거움이 쑥쑥 커져요

11월 11일 ~ 19. 페이백 행사와 20, 21일 주말장터 행사 개최

거창군은 묘사철을 맞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거창전통시장에서 페이백 행사와 주말장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행사로 주말장터와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연계한 문화행사와 체험행사, 감성적인 경품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말장터 페이백 행사는 시장 내 점포를 이용하면 온누리 상품권 또는 거창사랑상품권을 되돌려 주는 행사로 1일 당일 합산 3만원 이상 영수증을 시장변영회 사무실로 제출하면 6만원까지는 1만원, 6만원 초과~12만원까지는 1만5천

원, 12만원 초과부터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20일 21일에 개최되는 주말장터에는 거창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분들을 위해 지역가수 및 음악동아리에서 공연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무료시식, 체험 행사뿐만 아니라 TV, 선풍기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Y자형 출렁다리 개장으로 거창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계신다. 이 분들을 위해 시장 이용 시 생활속 거리두기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인용기자

2020년 거창전통시장 주말장터 대축제

행사 날짜: 7월 11일 12일, 9월 16일, 10월 16일, 11월 20일 21일

- 경품장차** LG LED TV (28인치) 및 벽걸이 에어컨, 선풍기, 거창사랑상품권 30만원 외 매회 색다른 경품 지급
- 공연행사** 지역 가수 및 음악 동아리 다수 출연 *시식코너 및 체험코너 운영
- 경품추첨** 오후 2시부터 경품 추첨 *당일별 2만원 이상 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 지참 고객에게 1인당 1매씩 배부

“ 거창전통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주말장터 대축제를 준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장보는 즐거움이 커집니다
거창시장이 장보러 오세요!

문의처 ☎ 055) 944-2581 (사) 거창전통시장

질병관리청 방역지침 준수 모범사례 경주 '늘푸른요양병원' 선정

방역의 생활화 함께 만들어 가요

질병관리청에서 방역의 생활화를 위해 홍보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모범사례'에 경주 늘푸른요양병원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경주 늘푸른요양병원은 지난달 2일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이후 경주시보건소와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발빠른 대처로 긴급하게 환자와 직원 530명 전수검사 실시 및 7병동 전체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늘푸른요양병원은 입원 환자와 방문객들이 방역수칙을 잘 이행

하도록 관리하고 코호트 격리 기간에 의료인의 보호구 착용과 고위험 환자 집중관리, 방역소독 등을 강도 높게 시행한 결과 지난달 16일만 한 명의 추가 확진자 없이 코호트 격리가 해제됐다.

이후에도 가족 등 방문객의 환자 면담시 가림막 설치, 발열체크, 방문 기록지 작성, 간식 등 물품 반입시 직원이 소독 후 대신 전달 등 부단한 노력으로 모범적인 방역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늘푸른요양병원을 방역관리모범사례로 선정해 지난 10일부터 카드 뉴스로 홍보하고 있다.

한반식기자

김포시 홍보대사 한한국 세계평화작가, 온라인북 등재 영예의 1호 인증



ONLY ONE CERTIFICATE
온라인북(Only One Book) 등재(1호) 한한국 세계평화작가 선정
세계유일 'UN 세계평화지도' 인증서 전달식

2020. 11. 12

김포시 홍보대사인 한한국 세계평화작가가 영국의 기네스북과 같이 한국에도 온라인북이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국민성공시대의 온라인인증원이 주최, (주)성공시대와 공동 주관한 온라인북 등재 1호로 선정돼 지난 12일 김포 한국갤러리에서 인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온라인인증원은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고 차별화된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 인물들을 발굴해 훌륭한 업적과 정신을 후대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세계유일 오직 단하나 온라인북을 제정했다.

등재절차는 신청접수 서류심사 현장검증 심사 온라인 공개검증 최종심사 최종 결과통보 인증서 전달식 매년 1월 온라인북 발간 출판기념회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장원석 국민성공시대 상임대표는

“세계평화작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있는 한한국 평화작가는 세계 유일하게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1994년부터 26년간 6층의 한글 서체를 개발해 39점의 '세계평화지도' 작품들을 창작 완성했다"며 "2008년 주유엔한국대표부를 통해 유엔 22개국 미국, 영국, 중국 등 대표부에 기증, 유엔본부 창설 이후 최초, 최다 '세계평화지도' 소장작가로 인증되므로 온라인북 등재와 함께 세계유일 온라인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 작가는 "온라인북 영예의 1호로 선정돼 주신 국민성공시대와 온라인인증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세계평화작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근기자

전북도, 한 달간 '숲 가꾸기 기간' 운영

전라북도도는 숲 가꾸기 기간을 맞이해 숲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산림을 보다 폭력 있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11월 한 달을 숲 가꾸기 기간으로 운영한다. 전라북도도와 각 시·군에서는 숲 가꾸기 기간 동안 주요 산림·공원·녹지대에서 시민, 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해 숲 가꾸기 작업과 산사정화, 산불조심 캠페인 등 관련 행사를 추진해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도는 11월 한 달간 총 11차례 시·군 및 산림조합 등과 함께 관계자 2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 16.2ha에 비료·거름주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등 숲 가꾸기 체험행사와 산사정화 작업을 진행한다. 13일에는 전라북도와 완주군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완주 국립농업과학원 일대에서 비료주기, 덩굴제거 등 숲 가꾸기 1일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전라북도 주관 숲가꾸기 체험행사 - 일시 : 2020년 11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 내용 : 비료 및 거름주

기, 덩굴제거 등 아울러 전라북도에서는 20년도 총사업비 256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숲 가꾸기 사업과 연 5만 7천명을 고용하는 녹색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 고해중 산림복지과장은 "숲 가꾸기를 통해 미세먼지 흡수율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림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더불어 녹색일자리 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으니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일기자



방역의 생활화 우리 모두 실천해요!

경주 늘푸른요양병원 편

솔피 김대건 서체 다운 받으세요

당진시, 김대건신부 폰트, 웹툰 개발 배포

김대건신부의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1주년을 기념해 당진시가 김대건신부 폰트, 웹툰을 개발·배포한다. 해당 사업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인 2020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당진시의 지원으로 제작됐으며 천주교 대전교구 솔피성서와 협의해 완료했다. 김대건신부 폰트로 제작된 '솔피김대건체'는 김대건신부 서한 필사본을 기초로 한글 자소의 형태를 분석하고 모양새별로 재분류해 글씨의 특징들을 추출했다. 세로쓰기로 쓰인 붓글씨를 현대 조판 환경에 맞게 가로쓰기 형식으로 변경하고

여러 환경에 적합하도록 가독성에 중점을 두어 정돈했으며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김대건신부의 시대정신을 알리고자 개발했다. 개발에는 주관기관인 씨앗디자인과 디자인 210이 참여했다. 김대건신부 웹툰은 모바일과 PC에서 볼 수 있으며 김대건신부 생애 및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등 다양한 활동을 총 21화로 제작했다. 시나리오는 네이버 웹소설가 이상범 작가, 그림은 대한민국의학콘텐츠대상 과학만화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박태욱 작가가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김대건신부의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이 1주년을 맞았다"며 "앞으로 김대건신부의 다양한 업적 및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를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聖 김대건 Saint Kim Dae-geon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된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시민참여단 뜨거운 열기, 2040년 김천시 미래 밝혀



'첨단과 전통을 가진 3대 살고 싶은 김천' 제안, 시민참여단 활동 대대원의 막

김천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정하는 2040 김천 도시기본계획 5개분과 시민참여단은 지난 11일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4차 회의 및 협의회를 갖고 4주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날 시민참여단은 4주간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김천시 미래상을 김충섭 김천시청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지고 김천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10.28.에 개최한 2차 회의에서 열린 논의를 통해 '첨단과 전통을 가진 3대 살고 싶은 김천'을 김천시 미래상으로 선정할 바 있으며 전달식에서는 김천시 미래상을 처음 제안한 4분과 이태을 위원은 "김천은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구, 도심과 신도시간의 불협화음이 아직 남아 있다.

드론산업, 자동차 산업 등 첨단산업의 장점을 가진 혁신도시를 첨단으로 표현했고 재래시장 및 전통 문화의 장점을 가진 구, 도심을 전통으로 표현했고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지는 그리고 3대가 안전하게 살고 싶은 김천을 희망한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김천시는 지난 7월 도시계획수립 전에 각계 각층의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천시 최초로 시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69명의 시민이 자율적으로 신청한바, 탈락없이 전원 시민참여단으로 8월 위촉후 회의를 개최하고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21에 위촉식을 갖고 첫 활동을 시작해 11. 11 4차 회의까지 4주 동안 김천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시민참여단은 1차 회의에서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며 일정을 시작했으며 2차 회의에서는 열린 논의 과정을 거쳐 김천시 미래상을 다듬고 최종 선정하는 작업

을 했다.

이렇게 선정된 김천시 미래상이 '첨단과 전통을 가진 3대 살고 싶은 김천'이다. 이후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분야별 미래모습을 확정했고 분야별 미래모습으로는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일하기 좋은 경제도시", "다'福한 복지", "시민 모두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 문화도시", "환경 친화적인 스마트 에코 도시", "아름답고 청정한 三山二水" 등 각 분야별 다양한 미래모습을 제시했고 마지막 4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천시 미래를 이미지화한 전략 폴라주를 만들어 분야별로 발표한 뒤 해당식을 가지며 모든활동을 종료했다. 김천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광역시급 규모인 총 69명의 대규모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시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지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상향식 도시계획의 기틀을 확립했다. 김충섭 시장은 해당식에서 "시민참여단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바로 민주행정이고 참여행정이며 김천의 에너지이고 김천의 인프라'라고 생각했다"며 "김천의 미래를 다 함께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열정적인 김천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전달한 소중한 의견은 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매력적인 김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참여단에게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참여단이 도출한 미래상을 바탕으로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에 반영해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말까지 2040년 김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용호기자

서울시, 자치구별 제각각 자동차과태료정보 통합...조회~납부 한 번에

스마트폰에서도 차량소유주 본인 인증만으로 과태료 조회 후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



이제 A씨와 B씨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불편사항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해 앞으로는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1.13.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녹색교통지역은 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기존에는 단속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알면 쉽고 편리하게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 있다.'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미납 및 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와 관계없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연계되어 있는 서울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주정차·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즉시 접수할 수 있고 처리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크게 높였다.그동안 자치구 단속조회 사이트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PC로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엔 서울시에서 통합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하

는 '반응형 웹' 기술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본 서비스에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단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마체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그 동안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강화군,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 추진

2021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강화군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와 양성화를 통해 지하수 오염방지과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해 2021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미등록 지하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군청 건설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기한 내 접수하면 관련 법규 검토 후 신고·수리해 양성화가 완료된다.특히 불법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한,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 신고도 모두 면제된다.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중남기자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 신고하세요!

자진신고기간 : ~2021. 5. 3. (월)까지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진 신고기간내 허가 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혜택 -

- 01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 02 이행보증금 면제
- 03 제출 서류 간소화

[자진신고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구비서류
허가대상 시설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영양조사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표준양식 활용)
신고대상 시설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표준양식 활용)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양성화 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강화군 건설과 지하수담당 ☎032-930-3482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환경국 조직 예산은 수도권 중 꼴등, 불법폐기물은 1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은 13일 진행된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환경국 조직의 규모가 타 시도와 비교해 크게 적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경국 조직을 살펴보면, 5개과 총 152명 수준으로 환경국의 업무 중요도에 비해 규모가 부족하다.이는 인천시 8개과 214명, 서울시 8개과 220명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낮은 수치다.또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경기도 환경국 예산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 시비는 5,300억원 정도인데 반해, 경기도 환경국은 518억원에 불과했다.이에 최승원 의원은 "조직에서 실국의 규모는 관련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히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도는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경기도에서도 환경국의 역할을 확대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원칙을 적극 펼치는 등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정책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진 질의에서는 재활용, 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환경부에서 파악한 전국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164,678.4톤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또한 경찰청에서 파악한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 현황 역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최승원 의원은 "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전국 1위인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5년째 불

법투기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전국 불법폐기물 1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상찬기자

해제면 사회단체, "청정 무안에 광주 군공항 이전 불가"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반대 릴레이 동참

무안군 해제면 사회단체는 지난 11일 해제면 다목적센터에서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합동으로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일방적인 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의 실태를 규탄하는 등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김양한 해제면 번영회장은 "10만 무안군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해제면민들도 군공항 이전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박문재 위원장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어 방식으로 국가 예산지원이 없어 추진되면 중단 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 군공항 이전을 막아내기 위해 9개 읍면 사회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식기자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영등포구, 코로나 극복 생명사랑 프로젝트... '마음건강 명의톡톡'

11.17. 저녁 7시 '마음건강 명의톡톡' 생명사랑 프로젝트...유튜브 채널 생중계

영등포구보건소는 오는 17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일환인 매직과 함께하는 온라인 생명사랑 프로젝트 '마음건강 명의톡톡'을 개최한다. 경기연구원의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 47.5%가 불안·우울감을 경험했고 감염병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 물품지원보다 정신·심리지원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에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마음상태를 점검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토론과 공유의 장을 마련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마음건강 명의톡톡'은 17일 저녁 7시부터 '영등포구 생명사랑'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 스트리밍되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PC나 모바일을 통해 구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김현수센터장이 출연해 '코로나시대,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과 고민 공유 및 상황별 솔루션 제시, 코로나19 이후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토의, 실제 우울증 사례와 위험 신호 알아차리기, 자살 극복 및 대처 방안 토의 등의 내용을 다룬다. 아울러 생명사랑의 주제와 연관된 마법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개선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06년부터 자살예방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2013년부터는 자살 예방 전문인력을 배치, 2020년에는 서울시 자살예방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힘쓰고 있다. 체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유발된 불안의 대부분은 감추고 두려워할 감정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코로나블루로 힘들어하는 구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해 심적 안정과 마음건강을 얻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특강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 협력 당부"

12~13일 통장워크숍 개최, 위촉 1년 이내 통장 등 128명 대상

광명시가 12월 13일 이틀 동안 광명극장 공연장에서 '통장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의 정책을 공유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광명시는 위촉 1년 미만 통장 92명과, 회장·총무 36명 등 총 128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이틀에 나눠서 진행했으며 발열체크 및 1좌석 띄어 앉기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운영했다. 워크숍은 광명시립합창단을 공연을 시작으로 도도현 총무과장의 통장의 역할, 이현숙 보건소장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박승원 광명시장의 특강, 이요셉 한국웃음치료연구소장의 웃음치료 특강으로 진행됐다.

특히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특강을 열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시장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500인 원탁회의, 협치토론회, 우리동네 시장실, 민관협력기구 등을 통해 민선7기 시민 참여의 문을 활짝 열었으며 올해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주민자치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며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동서와 남북을 잇는 교통플랫폼 도시, 청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도시, 소외와 차별 없는 도시,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통장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통장의 기본 역할부터 광명시의 정책의 기본 방향에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광명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행정정신으로 통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 최정부/기자



GTX용인역 국내 첫 고속도로 상공형 환승정류장 들어선다

용인시, 국토부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우수역사 선정...2025년 준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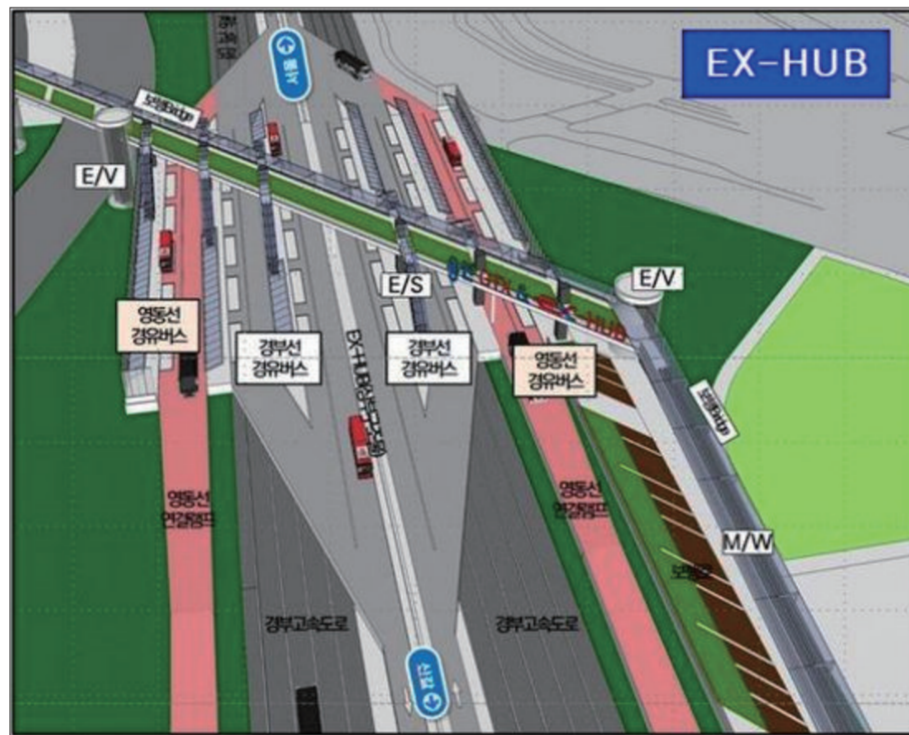
GTX 용인역에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국내 첫 고속도로 상공형 환승정류장이 들어선다. 이는 GTX 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보행자 다리를 연결해 GTX에서 고속도로는 물론 버스과 지하철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할 지자체가 참가해 용인시를 비롯한 4곳이 우수역사로 선정됐다. 시는 최우수 역사로 선정된 2곳이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GTX-C노선인 점을 감안하면 용인역의 경우 이미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에 있어 제언의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우수 환승센터로 지정되면 국토부로부터 1.5~2억원의 기본구상비와 교통·건축·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단을 지원받는 등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 정류장을 이용하면 이 일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 완화와 함께 고속철도 중심의 수도권 교통망을 구축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제안이 높게 평가돼 국토부 주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우수 역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GTX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내로 최소화하는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공모엔 GTX 30역사 중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서울역, 삼성역, 청

리역 등을 제외한 27역사의 관할 지자체가 참가해 용인시를 비롯한 4곳이 우수역사로 선정됐다. 시는 최우수 역사로 선정된 2곳이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GTX-C노선인 점을 감안하면 용인역의 경우 이미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에 있어 제언의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우수 환승센터로 지정되면 국토부로부터 1.5~2억원의 기본구상비와 교통·건축·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단을 지원받는 등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공모엔 GTX 30역사 중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서울역, 삼성역, 청



범사업 우수 역사에 선정돼 무척 기쁘다"며 "고속도로와 철도 등이 인접한 지역 여건을 독창적 아이디어로 풀어낸 용인역 복합환승센터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EX-hub의 구상안을 발전시키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국토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찬기자

여성의 역사이야기와 함께 걷는 늦가을 역사산책

서대문구, 여성친화테마길 온라인 스탬프 투어 운영

서대문구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관내 안산 여성친화테마길에서 온라인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이 길은 2017년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약체가 역사 속의 여성 및 지역과 관련된 여사를 알리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조성했으며 안산자락길 내 '만남의 장소'에서부터 '북카페 씬터'까지 약 2km에 이른다.

구는 이곳에 서대문 '여기로' 역사 속 위인 중 여성인물은? 주목 여성 독립운동가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슬픈 우리의 역사 '위안부' 양성평등의 길을 연 '이태영' 현대문학의 대표작가 '박완서' 키워드로 풀어보는 여성의 역사 등 8개의 스토리 보드를 설치했다.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 실행한 뒤 '위치'를 활성화시키고 이 테마길을 걸으면 8개 지점을 지날 때마다 앱에 자동으로 스탬프가 찍힌다. 구는 스탬프 8개를 모두 수집한 참

여자 가운데 12월 2일 이후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여성친화테마길 온라인 스탬프 투어가 '여성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물론 자연 속에서 늦가을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성남행복아카데미 온라인 비대면 강연

열네 번째 이야기,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

성남시는 성남행복아카데미 강연 열네 번째 이야기로 이지영 공간 크리에이터를 초청,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유튜브 '성남TV'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강연자는 실제로 많은 사람이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버리지 못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나만의 공간에서 불편하게 살고 있다고 전하며 인생도, 공간도 고정관념을 버리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맞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수년간 경험한 공간 재구성 에피소드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성남행복아카데미 열네 번째 강연자 이지영 공간 크리에이터는 tvn '신박한 정리',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외 다수 출연했으며 저서로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가 있다.

또한 인테리어·정리수납 노하우를 비롯해 죽은 공간을 되살리고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공간 재구성의 모든 것을 소개하며 공간뿐 아니라 인생까지 돌아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김영민기자

포천 반월아트홀, 오는 20일부터 다양한 공연 펼쳐진다

포천도시공사 반월아트홀은 오는 20일부터 4일간에 걸쳐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 지원사업인 '2020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공연산책'에 반월아트홀이 선정되어 4회에 걸친 공연을 진행하게 됐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포함한 해당 주간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로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지정된 날이다. 반월아트홀은 20일 보이스퀸에 출연했던 국악인 전영랑과 트로트 가수 한소민의 '국악과 트로트 크로스 오버'를 시작으로 21일 힙합 가수 박준호, 여성댄스그룹 로즈퀸, 팝페라 가수 손정수의 융합콘서트 '합합 With 커버댄스&팝페라' 23일 뮤지컬 배우 이진명, 팝페라 가수 장소연의 '뮤지컬 토크 콘서트' 24일 팝페라 테너 김재빈과 그 친구들이 선사하는 공연으로 한국의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가수 이문세와 조용필을 주제로한 '이문세, 조용필 스토리'가 펼쳐진다. 공연관람은 무료로 남녀노소 공연문화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예매를 받는다.

한영기기자

청소년에게 꿈을 드려요

서울 용산구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온라인 용산 미래교육 한마당을 연다. 구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에게 혁신교육·진로·과학 체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행사명은 '꿈을 드림'이다. 행사 주관은 구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용산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맡았다. 신청 코로 나비어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꾸렸다. 참여 대상은 지역 내 초·중·고 청소년들이다.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체험 놀이터 진짜 나를 찾는 놀이 전공 대학생, 멘토와 놀자 용산 놀이터에서 놀자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먼저 '진로체험 놀이터'는 각 분야별 체험 주제를 정하고 수업교구를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혁신교육, 진로직업, 과학체험 분야 등 20여개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구는 이달 초 학교별 사전신청을 받고 교육 배부를 완료했다. 구가 교육 프로그램 영상을 사전에 업로드 하면 행사기간 동안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체험을 진행하면 된다. 진짜 나를 찾는 놀이는 사전에 신청자들이 모집, 성격과 진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어 행사 기간 중 검사 결과에 대해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공 대학생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도 준비했다. '멘토와 놀자'는 청소년 관심도가 높은 학과 재학생들이 나서 행사 기간 중 11회에 걸쳐 실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 손쉽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 SNS를 활용,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용산 혁신교육지구 유튜브를 구독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함에도 청소년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며 "사전 신청과 실시간 참가 인원을 포함, 3천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2017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처음 지정이 됐다.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배움과 쉼을 위한 마을활동 지원체제 강화,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등 4대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장형 용산구정장은 "미래교육 한마당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서울시, '제20회KYMF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14~16일 온라인 개최

서울특별시 시장상·여성가족부장관상 등 우수작 45편 시상·11월 16일 시상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미디어 축제인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이 오는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은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미디어 축제이다. 이번 미디어대전에서는 자유주제와 특별주제로 6개 부문에 대한 작품을 공모했으며 특히 '소소한 일상 속 나의 영웅'이라는 특별주제 공모를 통해 청소년이 그리는 영웅의 모습이 무엇이며 '이 시대에 필요한 영웅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다양한 미디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수상작은 출품된 265편의 미디어 작품 중 분야별 전문가들과 청소년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총 45편을 선정했다. 수상작 45편에 대해 서울특별시시장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영화진흥위원회 등 기관상 동국대학교 등 총장상 서울영상위원회 등 단체상 씨네 21, 푸른나무재단 등 특별상 등을 시상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코로나 속 거리두기 일상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들이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숨겨진 영웅들'과 'toward'로 두 작품 모두 코로나 시대를 색다른 시선으로 표현해낸 점이 돋보인다. '숨겨진 영웅들'은 주변에 있지만 잘 찾지 못하는 코로나 극복 영

웅들을 숨바꼭질을 활용해 표현했고 'toward'는 코로나 시대를 유쾌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한편 2020년 미디어대전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시상식을 포함한 미디어대전의 모든 부대행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시상식은 11월 1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45편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 심사위원 총평,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의 축하공연이 준비되어 있고 내년도 미디어대전 특별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식에 앞서 11월 14일에는 본선작의 제작 뒷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코멘터리'가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웹진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며 15일에는 '네트워크 춤파티'를 개최해 심사위원과 참여 청소년들의 특별한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디어대전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출품작과 본선작의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관람이 가능하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업과 일상에 어려움이 많았을 청소년들이 미디어 창작활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작품을 많이 내주어 이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빛내고 있는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들이 끊임없이 창작 활동을 하고 꿈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지켜지도록 아낌없이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도봉구, 청소년 축제 '도발'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오는 14일 도봉구 청소년 축제 '도발'이 온라인으로 펼쳐진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무한하게 발전하라'는 뜻을 품은 청소년 축제 '도발'은 올해 6회째를 맞이한다. 행사는 도봉구 청소년문화기획단 '청연'이 주최하고 구내 5개 청소년 시설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청소년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진행했던 축제 형식이 아닌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4일 유튜브 채널 '도봉구청소년축제_도발'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 한다. 영상은 '도발' 축제에서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에피소드를 다루는 라디오스타 형식의 토크쇼와 도봉구 청소년시설 댄스 동아리가 도봉구의 주요 명소에서 촬영한 커버댄스로 구성됐다. 마음껏 발산하는 청소년들의 끼와 도봉구의 명소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청소년 축제 '도발'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축제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축제를 통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일몰 위기였던 동두천시 생연근린공원, 시민의 품으로

동두천시 생연동 주거지역 인근 생연근린공원을 2021년 3월까지 총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생연동 산 53번지 일원에 103,844㎡ 규모의 울창한 산림을 이용한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생연근린공원은 1965년 공원으로 결정된 후, 기상대, 현충탑 등 부분적인 공공시설의 조성은 있었지만, 오랫동안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조성이 지연돼왔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에 의해 지난 2020년 7월 1일자 공원효력 상실을 앞둔 상황에서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해, 공원으로서의 기능 유지와 공원 해제 시 예상되는 난개발 방지의 효과를 거뒀다.

이에 시는 조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2020년 9월 착수했고 2021년 3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종으로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과 정자, 운동시설, 산책로의 추가적조성과 함께 주차장 및 신규

쉼터를 조성하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시는 무엇보다 그동안 신시가지에 비해 공원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주거지역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원도심 주민들이 여가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 초청강연, '정도전,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2020년 인문교양 아카데미 2회차 강연

안성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국내 저명한 강사들을 섭외해 2020년 인문교양 아카데미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1회차 강연에 이은 이번 인문교양 아카데미 2회차 강연은 12일 오후 2시 시립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가 조선의 2인자인 삼봉 정도전에 대해 '정도전,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는 주제로 90분간 진행했다. 본 강연에서 이익주 교수는 "정도

전이라는 인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도전이 태어난 고려말기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며 "삼봉 정도전은 명문귀족이 아니어서 벼슬에는 올랐지만 그 자리는 순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정도전이 권력자들을 비판하다가 여러 차례 귀양생활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해 개혁을 꿈꾸게 돼 군사와 백성의 신임을 얻고 있던 이성계를 찾아가 함께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결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다"며 이야기를 펼쳤다.

김남주/기자

청원생명 쌀 제주도 릴레이 홍보·판촉 행사

청주시와 청원생명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제주시농협 임점 6주년을 기념해 지난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5일간 제주시 유통센터, 제주시농협 하나마트 오라점·일도점, 하귀농협 하나마트에서 청원생명쌀 릴레이 홍보·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 임점 농협 중 매출이 높은 4개 지점을 대상으로 청원생명 쌀 구매 고객에게 500g 홍보용 쌀과 청원생명 쌀눈을 증정한다. 현재 제주지역 내 청원생명 쌀 임점 개소 수는 6곳으로 제주유통센터, 제주시농협 하나마트, 하귀농협 하나마트, 대정농협 하나마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지역 소비자에게 청원생명

쌀의 우수한 품질을 홍보하고 더불어 청원생명 쌀 임점매장 수 증대를 통해 판로확대 및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진주시 뿌리일반산업단지에 첫 입주기업 탄생

13일 ㈜범우에이텍 산단 현장에서 신설 공장 준공식 개최

진주시는 13일 오전 11시 정촌면 뿌리일반산업단지에서 조규일 진주시장, 강민국 국회의원 등 주요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 내 첫 입주기업인 ㈜범우에이텍의 신축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뿌리일반산업단지 입주 1호 기업인 ㈜범우에이텍은 지난해 4월 진주시와 상호 투자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자동차 부품제조 관련 경험이 많은 ㈜범우정밀의 기술력을 이전 받아 산단 내 7744㎡ 부지에 200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앞으로 자동차 드라이브샤프트 및 각종 동력장치의 부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현재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산업시설 용지, 지원시설·주차장 용지 등 30% 이상의 입주 계약과 분양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당초에는 금속 가공, 기계 및 장비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등 3개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정밀·광학기기 및 기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되어 전체 8개 업종으로 입주 허용이 확대됐다. 또한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뿌리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공정기술을 벗어나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소재 등으로 범위를 늘리고 정밀가공, 3차원 인쇄, 로봇 등의 뿌리기술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뿌리기술 범위의 개편을 통한 뿌리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고부가 가치화로 새로운 뿌리산업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정촌일반산업단, 뿌리일반산업단, 항공국가산단에서 이어져 있는 특화된 기반시설을 장점으로 뿌리기술의 고위산업과 항공우주·부품소재 관련 첨단산업

이 적절하게 융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관된 산업의 유입과 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범우에이텍 공장 준공식에서 "뿌리산업단지 내 첫 공장 설립이라는 아주 뜻깊은 날"이라며 기업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뿌리일반산업단지는 사동팔달의 교통망 등 주변 입지 여건과 대한민

국 최고의 녹지공간을 확보한 친환경 무공해 산업단지로 향후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더 많은 기업이 뿌리일반산업단지에 적극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올해의 최고 규제혁신 사례는 도민이 직접 뽑는다

민생규제, 규제혁신 분야 각각 3건씩 투표

경상남도가 올해 최고의 규제개선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경남도 누리집 내 '경남1번가'를 통해 도민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도민투표대상인 '본선진출 규제개선 우수사례'는 사전에 접수된 총 74건을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발굴단의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16건이다. 7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제 혁신이 잘 된 우수사례 16건에 대해 민생규제분야, 규제혁신분야에 각각 3건씩 투표하면 된다. 도민투표 집계 결과는 오는 12월 4일에 개최될 '2020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평가 점수 중 40%로 반영될 예정이다.

박일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처음으로 규제혁신 경진대회에 도민이 직접 뽑은 사례가 반영되는 만큼, 최고의 규제 혁신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에 많

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어 "현장의 규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도민과 함께하고 나아가 도민이 직접 뽑은 규제 혁신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인용/기자

군위군, 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 표창

경북도 내 유일 선정

군위군은 지난 11일 청주에서 개최된 '2020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경북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5월, 균형발전사업 4년 연속 우수등급을 확보하고 '마을공동체로 이룬 개간촌의 기억, 화산마을'이라는 주제로 화북4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을 사례로 제출, 서면평가와 현장조사 등 종합심

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군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민들을 위해 추진해 온 균형발전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우수기관 표창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중심 농촌개발을 통해 소외되는 지역 없이 군민 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영호/기자



인류세 시대, 나와 지구를 살리는 생각의 대전환



김천시립도서관, 2기 '함께 걷는 인문학' 운영

김천시에서는 이달 '인류세, 인간과 지구의 미래는?'을 주제로 놓고 각계 전문가 3인을 초청, 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2주에 걸쳐 강연을 진행하며 2기 '함께 걷는 인문학'을 운영하고 있다.

강연 첫 주자로 나선 김윤하 작가는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수학하고 다수의 소설집과 인문서를 발간하며 현재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몸을 매개로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이날, 김윤하 작가는 육식과 부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등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짚으며 인류가 초래한 인류세의 위기를 대처해나갈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간의 몸은 동식물과 광물, 강·바

다·숲을 비롯한 생태계와 특별한 관계없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연결된 생태학적 연결망을 이루고 있으며 비인간존재들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폭력적인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내일 이어질 강연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지내고 있는 이은미 박사가 최근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가슴기 살균제와 라돈침대 사건 등 우리 몸 속에 축적되고 있는 화학물질, 이른바 '바디버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7일 마지막 강연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낸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인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를 생존의 기회로 전환하는 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몽호/기자

'밀양주산서당, 밀양화양정사' 도문화재자료 지정

'주산서당' 조선 유학자 정사건축 입지관 계승, 자연경관-건축물 배치 조화

경상남도가 12일 '밀양 주산서당'과 '밀양 화양정사'를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670, 671호'로 각각 지정했다.

'밀양 주산서당'은 근대기 유학자인 급주 허채선생이 1915년 강학소로 건축해 후학을 양성하고 성리학 탐구에 힘쓴 곳이다.

이번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곳은 강당인 체도당, 독서루인 산택재, 영각인 저후각, 대문재인 일감문 및 협문 2개소의 6동 건축물이다. 이 서당은 일출골에서 내려오는 동천과 표충사에서 내려오는 단장천이 합수되어 풍광이 뛰어난 낮은 산기슭에 북향으로 입지하고 있다. 이는 조선중기 유학자들의 정사건축의 입지관을 계승한 것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건축물의 배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당대 유학자의 자연관과 건축관을 엿볼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밀양시 부북면의 청원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밀양 화양정사'는 광주안씨 35세 안봉원이 1840년대에 이 마을에 정착해 지은 가옥으로 현재 모습은 1920년대 중반에 옛집을 허물고 신축한 근대 한옥이며 안채를 비롯한 사랑채, 도장채, 문간채 4동이 이번에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화양정사 안마당 주위에는 도장채와 꽃간채가 배치돼 근대 부농계층 가옥의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구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견실하고 실용적인 구조·형식 등에서 뚜렷한 당대 건축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영선 도 가야문화유산과장은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밀양 주산서당과 화양정사를 체계적으로 정비·보존하

고 활용하기 위해 밀양시 및 소유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송인용/기자

오라고 오라고 영천으로 전입오라고

영천시, 출근시간대 주요 관문지점 주소찾기 캠페인 실시

영천시는 지난 10일과, 13일 이틀간 출근시간대에 영천의 주요 진입관문인 금호을 교대사거리, 남부동도남공단사거리에서 시청과 시청관리공단 직원 120여명이 '영천 주소찾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된에 따라 인구늘리기 운동에 대한 불씨를 다시 일으키고 범시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경산권에서 출근하는 공공기관, 기업체 임직원들을 주요 타깃으로

아침 출근시간대에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번에는 '영천으로 가즈아' 영천관광 홍보음악과 참여자들의 울림이 더해진 새로운 홍보방법을 시도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 캠페인 열기를 더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근 우리시 인구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전시민이 함께하는 영천주소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구이동 요인이 많은 연말연시를 잘 극복하고 11만 인구달성을 위한 열정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늦가을, 마음을 담다



김천시, 시민행복민원실에 '이미화, 마음을 담다' 개최

김천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김천시청 열린민원실내 북카페에서 이미화작가의 캘리그래피전 '마음을 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는 글귀들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마음을 도약여주고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 캘리그래피 이미화 작가는 김천 출신으로 한국미술협회 김

천지부 소속 회원이다. 2007, 2009 인사동 경인갤러리 한국자랑 연구회전, 2019 창조 미술 협회전 입선, 김천 미술 협회전 전시, 대한민국 안전문화 미술대전 입선, 대구 미술대전 입선, 2020 신라 미술대전 특선 등 활발히 활동 하고 있다.

이번 시민행복 민원실 예술작품 전시회에 총 19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열린민원관과 장성윤 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서 시청 민원실 방문 시 문화생활도 즐기고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현식/기자

창원시, 튼튼한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조성 노력

사회적경제기업 수 매년 증가. 재정지원사업으로 자립 지원

창원시가 올 한해도 '다 가지 행복'한 창원형 사회적경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지정, 2018년 12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사회적경제담당 신설, 3월에는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며 사회적경제 기반을 마련했다.올해에는 경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판로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사회적경제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등 사회적경제 성장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섰다.경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창원시는 경남도와 함께 오랜 기간 방치된 동남전시장의 리모델링을 통해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019년 산자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280억원이 투입된다.사회적경제기업의 통합지원 체계로 사회적경제 성장의 중심점이 될 경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현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근차근 단계를 진행 중이다.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속 증가 추세다.올해 창원시 사회적기업은 15개, 마을기업은 4개가 새로이 지정되는 등 창원시 사회적경제를 이루는 사업체는 11월 현재 총 341개로 늘었다.이는 2019년 292개에 비해 약 16% 증가한 수치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

를 나타내고 있다. 양적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됐다.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청년부흥 프로젝트 마을기업 육성 등 총 110개 기업에 32억 64백여 만원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했다.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할 강화 지난해 3월 개소한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올해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경제 맞춤형 학습지원,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회적경제 DB 구축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설립 및 기초경영지원에 대한 상시적인 상담은 사회적경제기업을 꿈꾸는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이다.아울러 창원형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추진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자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며 온택트 시대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기도 했다.판로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적경제의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달 31일 성산아트를 가로수길에서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마켓'을 개최, 참여기업의 큰 호응을 받으며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제공했다.

올해 말까지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활동을 추진하며 판로지원 확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민간위탁사업 참여를 장려하며 공공서비스분야에

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사회적경제육성 5개년 계획 수립·추진 시는 지난 9월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사회적경제기업 572개사 육성, 공공구매율 30% 등 목표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해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으로 향후 5년간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박상석 창원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지역경제 침체 속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을 위한 사회적 가치 확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창원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과 연차별 로드맵에 따른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몽호/기자



경남도, 미래형 개인항공기산업 육성 위한 국제 학술회의 개최

보잉, 현대자동차 등 도심항공교통 개발 국내·외 선두기업들 참가

경상남도는 미래형개인항공기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진주·사천·고성과 공동 주최로 '2020 UAM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13일 한국주택토지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2020 UAM 국제 학술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후원으로 추진됐다.경상남도는 '미래형 개인항공기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2010년부터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기술진보와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정부와 업계는 '미래형 개인항공기' 관련 배터리·모터 기술, 충돌 회피, 자율 주행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경남도는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이번 학술회의 자리를 마련했다.

학술회의는 이랑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이행안'과 에릭존 보잉코리아 대표의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한 보잉의 비전'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로 시작됐으며이어서 도심항공교통 개발 국내·외 선두기업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현대자동차의 '도심교통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 사프란코리아의 '사프란의 새로운 항공모빌리티 솔루션' 한화시스템의 '한화시스템의 도심항



공교통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도심항공교통 산업화와 무인인동 비행체 설계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도심항공교통 개발 동향 및 과제'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한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항공기 인증'의 내용으로 구성돼, 도심항공교통 분야의 중요한 인증과 개발 동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됐다.특히 이날 현대자동차는 도심항공교통 시장에 대한 비전과 잠재적인 시장들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산업에서의 비행체 기술의 중요성과 기술현황·특성 등을 소개하며 이와 연계한 비행체 기술의 육성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종원 도 경제부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 '미래형 개인항공기 기술 경연대회'에 우승한 형 PAV'는 기술 성능이 향상돼 활주로 없이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기체다"며 "경남도는 미개척 시장이자 최대 유망 시장인 '미래형 개인항공기,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형 비행체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시험·평가·인증 기반 구축과 무인기 산업의 생산 기지화를 추진해 경남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행사에는 지난 10월 23~24일 개최한 '국제 PAV 기술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의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대회 수상기체와 국내 유인드론 개발기체 11점 전시를 함께 마련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한편 경남도는 무인기의 연구개발·제작·시험비행 등의 모든 단계가 집적화된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사업'과 '하이브리드 스마트 경량항공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연구 용역' 등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송인용/기자

"지역균형 뉴딜 확산 위해 공공기관 힘 모은다"

13일 '지역균형 뉴딜 확산 이전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울산시는 11월 13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와 8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균형 뉴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간담회는 정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이루는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에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마련됐다.간담회는

기관별 역량과 지역특색을 결합한 지역균형 뉴딜 취지에 부합하는 선도시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공유하고 기관간 협조사항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기간은 당기고 예산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고 행복은 높이고"라는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형 뉴딜을 소개하고 이중 '울산형 마을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또한 기관 협력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지역균형 뉴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도 요청한다.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산

업안전 혁신을 통한 안전망 강화,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디지털·비대면 신기술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 확산 전략연구 및 제도 정비 등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기관별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계획과 주요 사례들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울산시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균형 뉴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공유를 넘어 정책 공조를 통한 동반자 역량이 필요하다"며 "지역혁신을 위해 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상호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2020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 수영만서 돛 올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시아세일링 페스티벌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부산 수영만 일원에서 '2020 부산 슈퍼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요트협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요트협회 등이 후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영국 등 8개국 30척 2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외국인 선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내 거주 중인 선수들만 참가한다. 해양레저중심, 해양수도 부산의 아름다운 수영만에서 개막레이드 행사를 시작으로 3일간 개최된다. 대회 기간 부산 앞바다에

서 펼쳐지는 아름답고 역동적인 세일링 경기를 통해 요트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개막식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수영만 일원에서 30척의 참가정이 함께 하는 해상퍼레이드로 펼쳐진다.올해 대회는 비대면 경기 운영 방침에 따라 부산시장배 딩기요트대회와 시민 관람정 행사 등 부대행사는 개최하지 않지만, 해상에서 진행되는 박진감 넘치는 요트경기를 간접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유튜브(Youtube)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국제요트대회의 모범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요트 인구 저변 확대와 선수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주게 될 것"

남궁영/기자



호반써밋 더 프라임

김영록지사, “유증상시 업무배제” 등 강력 대처

사회복지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등 도지사 특별지시 시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최근 코로나19의 잇따른 확산과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발표를 통해 “지난 11월 8일에 이어 12일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전남 200번 확진자는 광양 거주 직장인으로 어머니와 동생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201번 확진자는 화순 거주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로 배우자와 자녀, 직장동료도 잇따라 확진됐다”며 “전남 207번 확진자는 여수 거주 광주 517번 확진자의 자녀”고 설명했다. 전라남도는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확진자의 광양 소재 회사 관리자 375명과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14명, 식당·의료기관 등 접촉자 194명 등 총 583명에

대해 진단검사 중이다. 이중 1차 검사 결과 12일 오후 2시 기준 6명 양성, 356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이용시설 11개소는 22일까지 임시 휴관 조치됐으며 화순군 노인복지센터는 비대면 시설서비스로 전환됐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감기라고 생각해 일상생활을 이어가 추가 확산이 발생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가 확진돼 어르신 등 감염 취약계층 확산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전남지역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4만 여명에게 안내문자로 ‘1일 2회 발열체크’와 ‘출퇴근 동선 최소화’ 등”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지사 특별지시를 통해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사업장에 대해 간부급 방역관리자 지정 유증상시 업무배제 출근과 외출 복귀 시 발열 체크 의무화 매일 증상확인을 권



김영록지사가 “동부권 추가 확산차단을 위해 역학조사관 8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 T/F팀’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철저한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한다”며 “밀접 접촉자 중간검사 실시와 격리해제 전 검사도 확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주말, 해남공룡박물관에서 만날까?

다채로운 공연과 사진전 등 “코로나 지친마음 힐링하세요”

깊어가는 가을,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코로나로 지친 이들을 위로할 특별공연과 전시회 등이 열린다. 공룡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오는 22일까지 한국사진작가협회 소속의 전라남도 사진작가 작품전 ‘제50회 전라남도사단합동전’이 개최된다.

전라남도사단합동전은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있는 행사로 전남 14개 지부회원 500명과 10개 동아리 회원 240여명이 참가한다. 지역 사진작가전으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공룡박물관 로비 홀에서는 오는 12월 8일까지 김리완 작가의 ‘지紙’ 다락으로 보인다’ 기획전시 실시되고 있다. 지호공예

는 한지를 찻쌀풀과 섞고 이겨서 물건을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공예 기법이다. 김리완 작가의 작품 40여점은 우리 고유의 전통 문양과 그림을 활용해 아름답고 신비로운 작품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매 주말에는 전국 공룡상설공연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가람아트컴퍼니의 사자탈춤과 상모돌리기, 남사당패 거리공연을 접목한 ‘유희타락 모리물이’가 볼거리를 제공한다. 가족단위 관람하기 좋은 신기한 마술공연, 실력과 가수들의 버스킹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야의 나들이가 쉽지 않은 시기인만큼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연들을 준비했다”며 “코로나로 지친 관람객에게 뜻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영욱/기자

신안군, SRT 3천만명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여행지” 선정

1004 뮤지엄 파크, 퍼플섬 최고여행지로



신안군이 2020 SRT 어워드에서 독자와 전문가가 뽑은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SRT 매거진은 올해 SRT가 뽑은 최고의 여행지로 신안을 비롯해 10개 도시를 선정했다. SRT 최고의 여행지 어워드’는 국내 여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연간 3천6백만명이 이용하는 SRT에서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 3년째로 해마다 탑승객 대상 설문조사와 여행작가, 여행전문기자 등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한다. 신안군은 자은면에 수석정원, 수석박물관, 세계조개박물관 등이 있는 “1004 뮤지엄파크”는 해양 복합 문화단지로 해상숲이 아름다운 양산해면 50만㎡에 특색

있는 테마로 꾸며진 뮤지엄과 공원을 갖추고 지난 8월에 오픈해 1만명이 다녀갔다. 특히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안좌반월·박지도 “퍼플섬”선포식 100일 만에 1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돼 하루 평균 700명이 다녀간 셈으로 대한민국 최초 섬 자체를 색채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섬의 가치는 한층 더 중요성을 느끼게 됐고 신안의 색채를 이용한 마케팅은 몇년 더 빨리 빛을 보고 있다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대한민국 대표 섬 휴양지로 꾸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바다 품은 자전거길 40선’ 전남 18개 ‘최다’

탄성 자야널 숨은 명소...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바다 품은 자전거길 40선’에 전국 최다인 18개 노선이 뽑혔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는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숨겨진 자전거길을 발굴해 자전거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발표했다.

선정결과 바다를 맞대고 이어진 자전거도로를 따라 독특한 풍광과 향토색을 느낄 수 있는 전국 23개 지자체의 40개 노선이 선정됐으며 전남도는 전국 최다인 9개 시·군 18개 노선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여수 금오도를 비롯

고흥 거금도부터 소록도 구간, 신안 입자도, 완도 생일도, 강진만 생태자전거길 등 해안도로 자전거길이 선정됐다. 특히 은빛 모래를 이룬 신안 대광해변과 생태 가치를 뽐낸 강진만 갈대해역,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금오도 자전거길 등 탄성을 자아낼만한 코스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바다를 품은 자전거길 선정과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택트 중심의 여행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전남의 숨겨진 명소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길 노선, 감상포인트, 주변관광지 등 안내 및 자전거 이용 시 편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과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돼 언제든지 내려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원활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을 정비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진도군,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 점포 챌린지 숍’ 3곳 추가 개장

진도대파, 울금, 검정쌀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판매

진도군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점포 챌린지 숍’ 3곳을 추가로 개장해 운영을 시작했다.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솔비치 호텔 & 리조트 진도 개장으로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진도읍 원도심인 아리단길 등 골목 상권의 특색 있는 음식과 체험거리를 접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점포 챌린지 숍’을 개장했다.

지난해 개업한 챌린지 숍은 진도 대표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점 3개소와 캘리 공방 1개소 등 총 4개소이다. 올해 추가로 개소한 3개소는 진도의 특산물인 진도대파, 울금, 검정쌀을 활용한 진도대파빵, 울금빵, 검정쌀단호박빵, 진도대파국 등을 판매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창업에 필요한 창업절차 등의 기본

교육, 청년 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공동 마케팅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청년 점포 챌린지 숍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진도의 특산품을 이용한 진도대파빵과 대파국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 무척 좋았다”며 “청년들이 자기 고장의 특산물을 이용해 음식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많은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말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청년점포 챌린지숍 운영으로 진도의 중심상권인 진도읍 남문로 아리단길 상가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진도의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한 음식 개발 판매로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아오는 또 하나의 대표 골목 상권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호/기자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온라인 수출상담 ‘큰 성과’

7개국 16명 해외바이어 대상...1천 117만 달러 계약 이끌어

전라남도가 해외 7개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펼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에서 1천 117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달성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12일 코로나19에 대응해 미국, 일본, 중국 등 7개국 16명의 해외 바이어와 도내 수출기업을 이어준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전남지역 39개 농수산물 수출업체가 참가했으며 해외 바이어 5명이 전남 6개 수출기업과 총 1천 117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해 온라인 수출상담의 효율성을 입증했다. 주요 계약실적으로 순천 참다래 프랜차이즈 500만 달러, 나주 곱들임이 500만 달러, 장성 내시피에프프랜차이즈 100만 달러 등을 계약했으며 이밖에 3

천 17만 달러의 계약도 이뤄졌다. 수출상담회에서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수출전망이 높은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들과 이메일, 위챗, 섀플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상담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이번 수출상담회에 전남 농수산물 해외의 시장 운영사와 신에이전트 등 바이어를 포함해 진행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의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을 위한 현장기동단을 운영했다. 수출 통관 절차 및 수출품목 코드 안내, 수출 애로사항 컨설팅 진행 등 수출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정이 참가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상진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수출상담회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전남의 친환경 농수산물품을 소개해 다양한 수출 거래선을 발굴하는 것이 주목적이다”며 “앞으로도 농수산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우수 해외 바이어 발굴과 곱들임 유통채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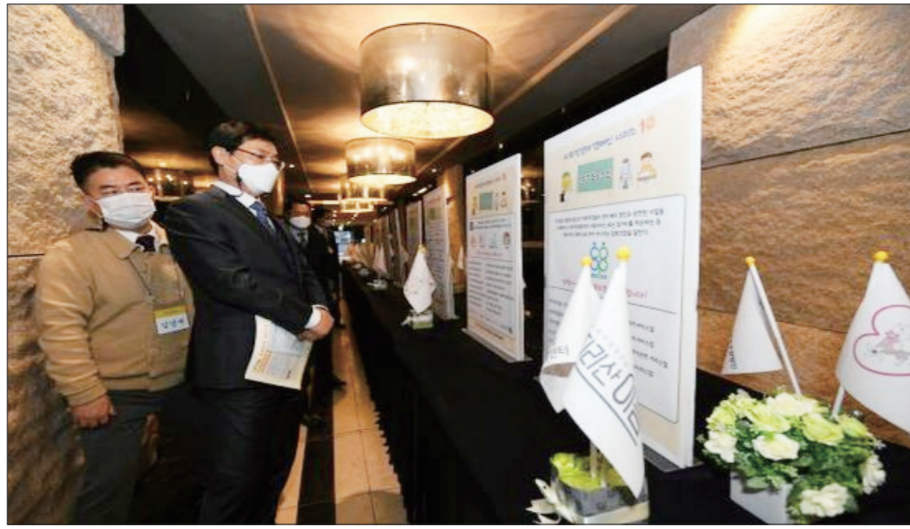
김덕윤/기자



남원시,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등 27개 업체 참가

진도군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점포 챌린지 슝' 3곳을 추가로 개장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으로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진도읍 원도심인 아리단길 등 골목 상권의 특색 있는 음식과 체험거리를 접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점포 챌린지 슝'을 개장했다. 지난해 개업한 챌린지 슝은 진도 대표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점 3개소와 캘리 공방 1개소 등 총 4개소이다. 올해 추가로 개소한 3개소는 진도의 특산물인 진도대과, 울금, 검정쌀을 활용해 진도대과빵, 울금빵, 검정쌀단호박빵, 진도대과국 등을 판매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창업에 필요한 창업 절차 등의 기본교육, 청년 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공동 마케팅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청년 점포 챌린지 슝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진도의 특산품을 이용한 진도대과빵과 대과국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 무척 좋았다"며 "청년들이 자기 고장의 특산품을 이용해 음식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말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청년점포

챌린지슝 운영으로 진도의 중심상권인 진도읍 남문로 아리단길 상가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진도의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한 음식 개발 판매로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아오는 또 하나의 대표 골목 상권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남철/기자

김장쓰레기 종량제 배출 4주간 허용

김장철 기간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

전주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일반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김장쓰레기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4주간 김장쓰레기 다량 배출에 따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김장철 기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평상시보다 하루 평균 34톤 증가함으로써 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과정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를 500짜리 일반쓰레기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장쓰레기가 많이 발생해 수거용기가 부족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나 일반쓰레기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1000짜리 소각용 봉투 등 다른 봉투는 수거 대상이 아니다.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마대자루와 노끈, 양

과망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의 고장의 원인이 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배추쓰레기는 잘게 썰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하고 마늘대와 고추꼭지 등은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시는 홍보 포스터 배부와 현수막 게시, 공동주택 협조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동처리반을 꾸려 농수산물 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김장쓰레기 다량 배출원의 경우 생산자가 되거나 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상습적인 불법투기 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김장철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 적체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수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배출요령 준수와 김장쓰레기 줄이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일/기자

전북도, 바지락 종자 대량생산 시대 열어

오는 16~17일 자체 생산한 무균 바지락 우량종자 1천만 마리 방류

전북도가 자체 생산한 무균 바지락 우량종자 1천만 마리를 도내 곳곳에 방류한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패류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며 패류 양식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13일 자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지락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체 생산한 무균 우량종자 1천만 마리를 오는 16일 부안, 17일 군산 일원에 각각 5백만 마리씩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바지락은 고창군 곰소만 일원에서 채취한 국내산 바지락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확보해 실내 수조에서 유생 단계부터 자체 무균배양한 식물성 플랑크톤과 시판용 분말 규조류를 공급해 생산한 우량 바지락이다. 그동안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바지락 종자 생산기술 확립을 위한 시험연구를 추진해, 확립된 생산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지난해부터 연간 1천만마리를 생산·방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중국산 종자에 의존하고 있는 바지락 종자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고자 패류 종자 대량 생산시설을 건립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9월 24일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을 고창군 동호에 있는 수산기술연구소내 부지에 ICT를 활용한 최첨단 패류 대량종자생산 시설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2021년 착공해 2023년에 완공할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은 연간 바지락 종자 50억마리 생산해 바지락 종자 수급 문제 해결을 통해

전국 바지락 최대 생산지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백합·홍합·가무락·새모막 등 도내 해역에 적합한 패류 종자의 시험연구 및 종자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은 "도내 갯벌은 백합, 가무락, 새모막 등 부가가치가 높은 패류양식에 적합해 원활히 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완공되면 패류양식산업 중심지로서 황금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제주'광주 여행사 대표단 전라북도-순창 팸투어 방문

포스트 코로나에 농촌의 숨은 체험 관광지가 뜬다

제주도와 광주광역시 여행사 대표단이 지난 12일 순창을 다녀가며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전라북도와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제주와 광주공원을 연계한 인바운드와 인터바운드 상품으로 광주-순창-임실-군산을 연계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문단은 도내 숨은 여행지를 찾아다니며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체험관광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별화된 숨은 체험관광상품이 잘 꾸려진 전북도에 타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방문소식이 전해지자,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업주들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순창은 광주와 인접하고 전라북도 최남단에 있어 새롭게 구성될 여행상품에 순창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지리적 강점이 있다. 이에 군은 새로 출시될 여행상품에 거는 기대가 크다. 체계산 출렁다리를 다녀간 방문단은 "제주도에는 없는 다리도 눈 앞에 펼쳐진 섬진강과 적성들의 풍경이 강과 눈이 없는 제주도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며 관광상품출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



렸다. 또 "제주도민은 과일에 관심이 많다"며 "황토땅에서 나는 '순창 금과배' 또한 제주에 없는 과일로 관광특산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강천산은 무장에 관광지로서 수확여행단에 오기 적합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다운 면모가 있는 고추장 민속마을은 외국인 국내여행자로 최적의 장소라 평했다. 순창이 체험농가가 특화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앞으로 수확여행단을 상품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았다. 순창군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순창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지역이라는 장점이 숨은 관광지의 아름다움과 볼거리가 많은 농촌 체험 관광콘텐츠 등 좋은 관광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을 우선시해, 전국을 넘어 많은 세계인이 순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문화도시 청주 상생 프로젝트,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달랜다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집콕 문화, 일상 기록, 힐링 치유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위로와 힐링을 전할 36일간의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 청주시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오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36일간, 청주시 전역에서 '문화도시 청주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나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마음에 문화의 위로를 전하고 유례없는 침체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일거리를 제공해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지역 예술인과 청년기획자는 물론 총북이벤트협회와 청주시서점협동조합까지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 이름 그대로 '상생(相生)'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36일 동안 이어질 이번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로 온라인으로 집에서 즐기는 [집콕 문화 프로그램] 기록문화 창의도시 비전 구현을 위한 [일상 기록 프로그램] 도심, 자연, 읍면 지역에서 누리는 [힐링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집콕 문화 프로그램]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집으로 배달 받아 온라인으로 즐기는 [집콕 문화 프로그램] 3종 세트가 격이다. 첫 번째 [집콕 문화 프로그램]은 유튜브 '문화도시 청주' 채널에서 영상으로 즐기는 '놀놀장터'로 지역 예술인 및 소상공인들에게는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놀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일종의 온라인 오픈 마켓이다.

'놀놀장터' 채널에서는 총 3개 영상 콘텐츠가 송출될 예정으로 먼저 '문화도시 청주 상생프로젝트' 기간 동안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랜선 마켓'이 방송되고 같은 날 저녁 9시는 DJ가 시민들의 사연과 일상의 삶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달밤의 보이스트'가 방송된다. 12월 1일 8일 11일 15일 18일 오후 2시에는 '편편 보따리'가 송출된다. 무드 등 만들기, 만년달력 만들기 등 문화예술 간접 체험 프로그램으로 랜선 시청자 중 해당 선착순 신청자 100명에게는 '편편 보따리 체험키트'를 무료로 배

받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집콕 문화 프로그램]은 11월 20일 11월 27일 12월 4일 오후 2시에 만나는 '청주 웰니스 여행 탐험대'다. 코로나19로 여행에 목말라 있는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기획한 랜선 여행으로 시간탐험대 영웅탐험대 별별탐험대 3가지 테마의 여행을 영상으로 즐길 수 있다.

'청주 웰니스 여행 탐험대' 역시 영상을 시청한 시민 중 회당 100명씩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아 청주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제작한 컬러링 맵서 퀴즈 등 다양한 재미가 담긴 '투어북'을 무료로 배송해 준다.

마지막 [집콕 문화 프로그램]은 12월 12일 12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썸인 콘서트' 집콕 크리스마스 공연이다.

동부창고 35동에서 무대를 펼치는 이날 행사는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5가족과 온라인 9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행할 예정으로 온 가족이 함께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을 뒤로하고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과 이벤트로 한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홀로 끄적끄적 [일상 기록 프로그램] '기록 문화 창의도시'를 비전으로 삼은 문화도시 청주답게 '기록'을 매개로 한 [일상 기록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첫 번째는 농부의 마음으로 40일 동안 식물이 자라는 전 과정을 사진과 글로 기록해가는 '컵밭 일지'로 오는 17일과 24일 오후 2시 유튜브 '문화도시 청주' 채널에서 송출되는 실시간 영상에서 체험키트를 신청한 랜선 시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350명까지 '컵밭 일지 키트'를 무료로 배송한다. 또한 정성 가득한 기록 일지를 보내 준 시민 가운데 30명을 선정해 특별 기념품도 제공한다.

두 번째 [일상 기록 프로그램]은 12월 7일~18일 월·수·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유튜브 '문화도시 청주' 채널에서 만날 수 있는 '할매 레시피'다. 시골 어르신들의 손맛과 추억이 담긴 요리비법 영상을 보며 따라해 볼 수 있는 랜선 쿠킹 클래스로 향후 요리에 얽힌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와 요리과정 일러스트 등이 담긴 레시피 북도 발간할 계획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연에서 편



안하게 [힐링 치유 프로그램]

코로나19로 바깥나들이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힐링 치유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드넓은 자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첫 시작을 알리는 행사는 '시크릿 과수원'이다.

14일과 15일 오후 2시 문의면 마동리의 한 과수 농가를 무대로 드로잉 서커스와 공중 퍼포먼스, 충북도 지정예술단인 '극단 꼭두광대'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으로 문화도시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선착순 사전 예약제로 진행한다. 11월 15일 ~ 11월 29일 매주 월·금·토·일요일에는 '추억의 유랑극단'이 청주 곳곳의 읍면지역으로 찾아가 공연을 펼친다. 트로트, 품바, 색소폰 등 다양한 장르의 1인 공연자가 시골 마을 구석구석을 유랑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작지만 반가운 무대를 펼칠 예정으로 코로나19 탓에 장터 나가는 즐거움마저 잃어버린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21일 오후 2시에는 청주시 4개 구에서

'베란다 콘서트'가 열린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창문을 열고 클래식 공연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문화예술과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일과 22일 오후 2시에는 청주시서점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무심천 썸씽'이 운영된다. 무심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인문학 투어로 무심천 자전거 도로를 따라 마련된 작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 및 지역서점·책방이 추천하는 책 소개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지역 서점에서 3만원 이상, 헌책방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할 시민에게 복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독서의 계절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도시센터는 "36일 동안 펼쳐질 문화도시 청주 상생프로젝트가 코로나 블루를 견어내고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문화로 힐링하고 예술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생프로젝트로 문화도시 85만 청주시민 모두를 초대한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청주시립미술관, 신진작가 지원전'ON:LINE'전시

오창전시관에서 신진작가 현대미술 작품 선보여

청주시립미술관이 오는 17일부터 오창전시관에서 2020년 신진작가 지원전시 'ON:LINE'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지원 사업으로 전국 각 지역 등록 공립미술관이 신진작가와 함께 전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미술계 신진작가의 창작을 활성화하고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 선정된 이선구 작가는 청주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작가로 일상의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작가다.

주변에 있는 일상의 사소한 공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낸다. 'ON:LINE'전에도 사소한 일상의 순간을 선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드로잉, 미니어처, Line Room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에 임한다. 작가가 선보이는 드로잉, 미니어처, Line Room 작품들은 모두 선으로 연결돼 있다.

이번 작업의 주제이기도 한 '선'을 통해 공간을 나누고 이어나가고 재구성하며 추상적 장소를 만들어낸다. '점'이나 '면'과는 다르게 '선'들의 표현은 '활동적인 움직임'과 '새로운 흐름'을 표현하는 기호로 담아내고 있다. 작가는 선의 이미지를 이용해 점에서 점을 향해 가는 선들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활용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문화예술계가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세종시문화재단, 19일 기업의 문화메세나 활성화 위한 특별강연 진행

'2020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사업' 선정, 한국메세나협회와 공동 추진

세종시문화재단은 세종시 기업의 문화메세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문화공작소 스튜디오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세종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해 준 기업과 예비 후원기업을 대상으로 문화메세나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마련됐으며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준비했다. '문화메세나 제대로 하기'를 주제로 이날 행사는 이금룡 회장의 초청강연과 이종관 사무처장의 사례발표, 아더 첼로 콰르텟의 해설이 있는 공연 등으로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오픈옥션 회장을 역임한 이금룡 회장은 현재 사단법인 도전과나눔 이사장 및 한국메세나협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 문화경영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수강인원을 약 2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며 강연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강연실황을 세종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이번 강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근사한 밤, 감사한 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그동안의 문화메세나 사업 결과물을 담은 영상 제작 등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설립초기부터 기업-시민-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지난 4년간 약 21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확보한

바 있다. 문화메세나는 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로마의 정치가 가이우스 마에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로 기업의 문화 후원을 뜻한다.

최재은/기자

서천군, 보물 224호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 보존 처리 완료

서천군은 지역 중요 문화재인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에 대해 과학적 보존처리를 지난 12일 완료했다.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은 지구온난화 및 환경 변화로 인해 생물학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었다. 옥개석과 면석에서 균열이 관찰되고 해방 이후 보수한 것으로 보이는 수평을 맞추기 위한 고임쇠가 부식돼 구조적 변형과 녹물이 발생해 무기오염물이 석탑을 오염시키고 있어 보존 과학적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한, 석탑 상륜부의 완전하지 못한 구성성재로 인해 잘주공에 우수가 침투하고 있어 고임쇠 등의 부식을 유발하는 등 석탑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생성된 오염물은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훼손시키며 풍화, 변색을 야기하고 타 오염원과 복합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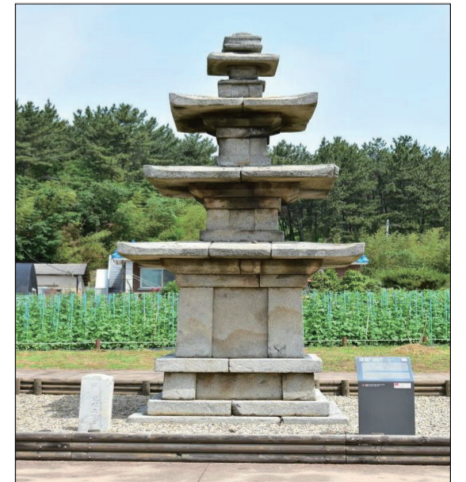
작용해 훼손을 가속하므로 오염물 및 오염원의 제거가 필요하다.

보존처리는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이찬희 교수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X-선 회절분석, X선 형광분석 측정, 비파괴 진단 검사 등 보존 과학적 조사를 실시해 보존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했다.

보존 처리는 표면에 있는 생물학적 오염물과 대기환경으로 인한 오염물을 제거하고 우수유입 방지, 부식방지 조치를 하는 동시에 상태가 취약하다는 관정을 받은 부재에 대해서는 강화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편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은 백제계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고려시대 석탑으로 현존하는 석탑 중에서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과 가장 유사한 탑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제계 석탑의 지방 분포에 따른 양

식전파를 파악하는데 매우 귀중한 유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224호로 지정받아 관리되고 있다.

고정화/기자



세종테크노파크, 비대면 세종기업지원안내 서비스 선보이다

세종테크노파크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기업지원 안내 방식인 비대면 세종기업지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초마다 기업인들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책자 배포로 대체되자 이에 대응전략으로 모바일 웹을 통해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및 유관기관 정보, 애로상담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기업지원 안내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이번 모바일 웹에는 세종TP가 중소기업 지원하고 있는

세종TP기업지원사업소개 기업마당에서 제공하는 총권권 기업지원사업 정보 기업지원 유관기관 안내 애로상담 신청 등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애로상담 신청 서비스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세종TP가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처사항, 기업경영애로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유관기관과의 연계, 중기부 및 중기청, 세종시 등 정부에 건의해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이루미'도 접수할 수 있

다. 김현태 세종TP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기업지원 안내 및 상담 뿐 아니라 "세종SB플라자 5층에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상담 창구 '세종TP 컨택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니 도움 필요한 기업인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도움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순희/기자

의정부시, 이민준씨 모범시민 표창 수여

의정부시는 전통휠체어 조작 미숙으로 부용천에 떨어진 어르신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조치해 구조한 이민준 씨에게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했다.

이민준 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시경 약 2.5m 가량 되는 부용천 아래로 떨어져 미동도 없이 물 위에 떠 있는 한 할아버지와 언덕에 걸려 있는 전통휠체어를 발견했다.

그는 지체 없이 부용천으로 뛰어 들어 할아버지를 구조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를 도와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꿈이라는 이민준 씨는 “병원으로 실려 간 어르신이 무사해 천만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위급 상황속, 침착하고 신속한 행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 준 용기 있는 행동이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건강한 사회 풍토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홍성군, 정용갑 농촌지도사 올해의 스타 지도사 선정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정용갑’ 농촌 지도사가 그동안 홍성의 특산물 홍산마늘 보급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스타지도사로 선발됐다.

스타 지도사는 농촌진흥기관에 재직 중인 담당공무원 중 농업·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시상하는 명예로운 상이다.정용갑 지도사는 국내 마늘 신품종 ‘홍산마늘’을 보급하고 홍성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재배 기술을 제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급변도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 그 결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과 전국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홍성홍산마늘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소비자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홍산마늘을 접할 수 있게 됐다.충청남도는 지역 특산물 육성과 자체 유통망 구축 등에 대한 그간 노력을 인정해 ‘정용갑’ 농촌지도사를 스타지도사로 선정했으며 추후 국제교류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이번 선발 결과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정용갑 지도사’는 “아직 부족하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것 같다. 앞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창원시, ‘제10회 창원아동문학상’ 수상 작품 선정

동화 ‘독립군이 된 류타’, 동시 ‘똥시집’ 선정

올해로 제10회째를 맞는 창원아동문학상의 주인공이 선정됐다.창원시는 작년부터 아동 분야 전반의 발전을 위해 동화·그림책, 동시·평론 2개 부문으로 나눠 지난 6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했으며 아동문학 전문가로 구성된 예심과 본심, 두 차례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창원아동문학상 동화·그림책 부문은 유행우 작가의 ‘독립군이 된 류타’, 동시·평론 부문은 박정섭 작가의 ‘똥시집’을 최종 수상작품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최종 선정된 작품의 작가들에게는 상패와 창작 지원금 1천만원이 각각 주어진다.올해 선정된 동화책 ‘독립군이 된 류타’는 아이들에게 지나간 역사의 기억이미지를 스토리화 해서 현재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점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동시집 ‘똥시집’은 동시를 노래 그림과 함께 다양하게 변환시켜 아이들에게 시의 리듬과 재미를 느끼게 해 주는 점이 독특한 작품이다.심사위원회에서 작품들 간의 열띤 경합 끝에 선정된 작품으로 위원들은 ‘독립군이 된 류타’는 “역사속에 실재로 있었던 천만계급 출신의 독립운동을 기본 모티브로 해 신분질서 개혁과 우정, 민족애, 독립운동정신등을 어린이 눈높이로 잘 펼쳐보였다”고 평가했으며 ‘똥시집’은 “동시와 노래 만화가 일심단결해 다양한 이야



기거리를 구성한 실험적인 작품이며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매력을 강하게 보여줬고 시 편들도 매우 개성적이다”고 평했다.

2011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제10회째를 맞는 창원아동문학상은 시상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공연,

체험행사 등 작품관련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기획해서 많은 아동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 수상작품 콘텐츠 행사는 취소하고 11월 24일 시상식만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용호기자

조안면 카페 대너리스 대표, 1억원 상당 우족 기부

아름다운 조안, 아픔 속에서도 소외 계층을 돌아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3일 조안면에 소재한 카페 대너리스를 찾았다. 카페를 운영하는 윤범선 대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1억원 상당의 우족 1500박스를 기부함에 따라 직접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오랜 시간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해 왔던 곳인 조안면에서 더욱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마음을 보여주시니 더욱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전달식에 참석한 윤범선 대표는 “이런 나눔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시름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광주문화재단, 제4대 대표이사에 황풍년 씨 내정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문화재단 제4대 대표이사로 ‘전라도 닷김’ 발행인 겸 편집장인 황풍년 씨를 내정했다.광주문화재단에서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역량있는 전문가 영입을 위해 3차에 걸친 전국단위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며 광주시는 지난 6일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면접심사에서 최종 2명을 추천받아 후보자 적격여부를 검토한 끝에 황풍년 씨를 적임자로 최종 낙점했다.황 내정자는 순천고 고교대 불문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일보 기자, 광주드림 편집국장, 아시아문화원 이사를 지냈다.특히 전라도 닷김을 20년 동안 펴낸 특심의 편집장 겸 발행인이자 전라도의 가치를 알리는 마당발 방송인, 전라도 문화의 근원을 책으로 엮은 저자이기도 하다.또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쉽 없이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온 문화운동가로서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해왔다.황 내정자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과정을 거쳐 12월 중 시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김덕윤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볼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세계적 명성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展, 강동구에서 만난다

세계 유명 작가 50인의 작품
한자리에... 꿈과 희망 전해

강동구 강동문화재단이 11월 19일~2021년 1월 19일 강동아트센터 아트랑 스페이스 #1, #2에서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 with 마리쿠테 알파벳 동물원전'을 연다.

이탈리아 중북부 고대 도시인 볼로냐에서는 1964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문학 박람회인 '볼로냐 아동 도서전'이 매년 열리고 있다.

볼로냐 아동 도서전 사무국은 지난 2016년 기념비적인 전시인 '볼로냐 일러스트 50주년 특별전'을 진행했고 그 공식 순회전이 강동구에서 개최된다.

특별전에서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선정한 세계적인 동화 작가 50명의 일러스트 작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다.마치 책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연출, 증강현실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그림책을 오감으로 느끼는 장이 마련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1967년부터 2016년까지 50년간 세계 거장들의 작품과 특별전에 참여한 유일한 한

국인 작가 '이수지'의 작품이 전시돼, 다채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그림책의 시대 흐름과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마리쿠테 알파벳 동물원전은 아이들의 호기심 스위치다.2017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마리쿠테의 책에서 사자, 공룡 등 동물들이 알파벳을 사용한 그림으로 재탄생한다.

전시는 책을 3차원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다양한 동물 찾기 탐험, 알파벳 동물들과 영어공부 등이 가능하다.3층에서는 그림책으로 놀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레드, 그린, 블루 3개의 마법 랜드로 정글과 사막에 사는 동물들을 만나고 책과 멀티미디어가 융합된 AR 그림책을 통해 재미있게 책을 접할 수 있다.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그림책은 아이가 만나는 첫 번째 미술관이자, 0세부터 100세까지 보는 예술작품이라고 한다.강동구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전시,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꿈과 희망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전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며 강동문화

재단 네이버TV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전시는 오전 10시~오후 6시에 열리고 매주 월요일 휴관이다.입장료는 1만원, 예매는 강동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황규석/기자



창작가무극 '굿세워라금순아', 17일 저녁 7시30분 고창문화의전당서 공연

고창군이 창작가무극 '굿 세워라 금순아' 공연 작품을 오는 17일 저녁 7시30분에 고창문화의전당 무대에 올린다.'굿 세워라 금순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국·공립단체 우수공연에 선정되기도 했다.'굿 세워라 금순아'는 신나는 음악과 온몸을 들썩이게 하는 춤, 우리에게 익숙한 신명나는 장단으로 이루어져 한바탕 소동극 민속신앙인 '굿'을 소재로 만든 창작가무극이다.새로운 소재와 형식의 공연을 끊임없이 발굴해 선보이고 있는 서울예술단의 탁약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특별한 창작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젊은이들이 거의 다 떠난 한적한 농촌 마을에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오랫동안 지키고 가꿔온 숲이 훼손되게 되자 이를 저지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소동을 그리고 있다.또 소중한 전통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자연을 아끼며 보호해야 한다는 주제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가운데 조선족 귀향, 러시아에서 시집온 안나, 티벳에서 둔벌러 온 캄차 등을 통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고창군은 "신나는 음악과 리듬으로 온 몸을 들썩이게 하며 국악의 멋과 흥이 가득한 신선한 경험을 군민들과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청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가족극 '흥덕사의 하루'

직지를 주제로 14일~15일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청주시가 2020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문예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청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가족극 '흥덕사의 하루'를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선보인다.이 공연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과 15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에 만날 수 있다. 가족극 '흥덕사의 하루'는 금속활자를 제작하고 직지를 인쇄하는 과정을 그린 노래, 춤이 혼합된 세미 뮤지컬 형식의 가족극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

는 공연이다.이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지원받아 진행되는 문화나눔사업으로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직지를 널리 알리고 청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레퍼토리로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전문 예술인들과 협업으로 직지를 소재로 한 공연을 선보이게 돼 그 의미가 더욱 소중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청주시립국악단 김서하 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제28회 대전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청주시립국악단의 김서하 상임단원이 제28회 대전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이 대회는 지난 7일~8일 이틀간 이뤄졌으며 경창, 무용, 기악, 풍물 등 8개 부문에 총 25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전전국국악경연대회는 우수한 국악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국악 등용문이다.이날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2012년 1월에 입사한 김서하 씨는 중앙대학교 국악관현악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 전수자이다.현재 독주회 등 해금을 통해 뛰어난 음색과 연주역량을 폭넓게 발휘하며 다양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청주시립국악단은 개개인의 실력이 뛰어나 올해 상으로 인한 경사가 많다"며 "청주시

립국악단의 공연을 통해 직접 들으시면 더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20년 안동 K-POP 랜선 콘서트 개최, "랜선으로 만나요"

B1A4, K.A.R.D, 전지윤 등
K-POP 스타, 안동에서 희망 전달

K-POP 스타들이 총출동해 코로나19로 지친 안동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안동시와 경상북도도는 오는 11월 17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안동실내체육관에서 '2020년 안동 K-POP 랜선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매년 관객과 호흡을 함께하며 안동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구던 기존의 K-POP 콘서트와 달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 생중계로 펼쳐진다.

실시간 관람은 안동시 공식 유튜브 채널 '마카다 안동'과 LG헬로비전 영남방송 채널 '헬로대구경북' 두 채널에서 만나 볼 수 있다.주요 참여 가수는 유병 아이돌 그룹 B1A4를 비롯한 K.A.R.D, 전지윤, 지세희, 트루디, 윈어스, 퍼플백, BXX 등 K-POP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출연해 에너지 넘치는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다.특히 언택트 시대를 맞아 가로막힌 공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화상회의 서비스 "줌"을 활용해 K-POP 스타와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이를 위한 경우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2020 안동 K-POP 랜선콘서트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한, 외부에서 안동을 방문하는 촬영 관계자들로부터 코로나 음성확



인서를 필히 제출받고 콘서트 현장의 방역, 열감지 시스템 운영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안전한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안동 K-POP 랜선 콘서트에서 시민들이 KPOP스타와 직접 마주하

지 못해 아쉽지만,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를 통해 그 아쉬움을 떨쳐버릴 만큼 최고수준의 공연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힐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채만식문학관 지등 시화전 개최

근대역사박물관과 연계한 금강권 탐방코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채만식문학관은 오는 20일까지 지등 시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지등 시화전은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군산의 여류문학단체인 나루에서 20여점의 지등 시를 새겨 넣은 문학작품을 만들어 전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생활에 지친 시민들과 채만식문학관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자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열리게 됐다.

또한 채만식문학관은 시민과 단체들이 기증해온 교과서와 고서적 등을 모아 교과서 기획전전을 열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는 "일제강점기, 교과서의 시간"전을 시작으로 현재는 "광복 이후, 교과서의 시간"전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10월에는 "청사초롱 시흥시회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박물관관리과 관계자는 "채만식문학관에서 개최하는 문학과 예술이 함께하는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 힘들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함양군, 오는 22일 '댄싱 키즈 Dancing Kids' 공연 개최

문화예술회관서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인터넷·현장 예매

함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던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사업의 공연인 안산문화재단의 무용 '댄싱 키즈 Dancing Kids' 공연을 다시 진행한다.공연은 오는 22일 오후 3시이며 공연 시간은 70분, 관람료는 1층 8,000원 / 2층 6,000원이고 예매는 10일부터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예매하면 된다.'댄싱 키즈'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개관 15주년을 맞이해 제작된 공연으로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단원 김홍도를 소재로 한 새로운 형식의 무용이다.

또한 단원 김홍도의 대표적 풍속화인 '무동'을 타이틀로 한국을 대표하는 4명의 안무가들이 각각의 장르와 시선으로 해석한 안무를 선보이는 독특한 형식의 무용을 선사한다.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스트릿댄스 4팀이 저마다의 장르적 움직임으로 오

정보경댄스프로젝트 '아우라 AURA', 4팀이 저마다의 장르적 움직임으로 오

송인용/기자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으로 국가대표 드론기업 육성

13일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 핵심기업 육성방안 등 의결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에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를 개최하고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과 국내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실행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함께 정책을 논의해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했다.

드론산업협의체에 따르면, 국내 드론산업은 민간의 끝없는 도전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국내 시장규모가 4년여 만에 6.5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 없고 일부 공공기관의 중국산 드론 선호와 저조한 드론활용 실적 등은 정책 미흡점이자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드론산업협의체는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해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국산드론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논의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외연 확대를 넘어, 우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개선, 투자·지원 확대, 실증기반 강화,

성공모델 발굴 및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기업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공표해 집중 지원하고 공공조달 시장에는 핵심기술 보유업체만 참여도록 함과 동시에, 중견이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수요기관이 양질의 국산드론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주 단계부터 평가까지 드론 구매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금융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A·B·C·D·E·F·G·H·I·J·K·L·M·N·O·P·Q·R·S·T·U·V·W·X·Y·Z 등 미래기술 R&D를 진행해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내 비행시험장 신설, 실증도시·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실증사업 확대, 상용화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우수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 물류배송, 드론 스마트영농, 드론 스마트시티 관리 등 유망 비즈니스 모델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증해 조기에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5년까지 국가대표 기업을 2개 이상, 혁신기술 보유 유망주 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해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드론 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드론 구매·교육 확대,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강화, 규제·제도 개선, 드론활용 내실화·다양화를 추진한다. 조달제도 개선 및 구매 컨

설팅을 통해 공공드론의 국산비율을 67%까지 끌어 올리고 드론 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맞춤형 임무수행 특화교육 확대 등 활용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드론산업 실무협의체를 통한 각종 규제·예외사항 개선과 기관 간 노하우·정보 교류 확대를 추진해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제도 정비 및 조종자 배상·감사책임 완화 등을 통해 활용현장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분야의 드론활용을 촉진한다. 이에 더해, 드론 정비·유지보수 전문업체를 발굴·육성해 드론활용 신산업 분야를 창출함과 동시에, 잦은 드론 고장 등 활용 현장에서의 예외사항도 함께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공분야의 성공적인 드론활용 경험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민간의 드론활용 시장도 조기에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국내 드론산업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국가대표 기업 육성과 같은 질적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와 같은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이 필요할 때”며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충실히 추진해,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찬/기자

무역대국 도약 위한 수출 디지털 대전환 이끈다

우리 경제는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정부는 11월 13일 오전 11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트라 1층 로비 행사장에서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최근 수출이 9월 이후의 수출개선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민·관 공동으로 수출개선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범부처 수출 대책도 발표해 연말 수출활력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첫 수출에 성공하였거나, 중단되었던 수출이 재개되는 등 수출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이 참여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희망메시지를 공유하는 한편 수출 현장의 기업으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을 발표해, 한국 무역의 대대적 디지털 전환 및 무역구조 혁신을 통해 수출의 시장·품목·주체를 다변화하는 1석 3조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코트라, 중진공, 무보 등 유관기관과 수출 성공사례 4개 기업이 참석했고 화상으로는 수출성공사례 6개 기업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01 3대 B2B 플랫폼
- 바이코리아, 고비코리아, 트레이드코리아

02 글로벌 마케팅

03 전자무역·통관·물류

04 비대면·디지털 활용 인프라

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

창원시, 경제활성화 위해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연다

창원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의창구 팔운동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0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창업 아카데미는 창원시민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 창출 이해도 증진과 인식확산,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원형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발굴·육성 지원 등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대를 위해 열린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존의 시장경제처럼 이윤추구만이 목적이 아닌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람의 가치를 가장 염두에 두고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창업 아카데미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되고 사회적경제와 창업에 관심이 있는 창원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우수창업팀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의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창업팀’ 추천이 부여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과정은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심화교육, 창업분야별 전문 멘토링 등 3개 강좌로 진행되며 사회적경제 인식제고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 일반인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정보 전달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시민이 주도 해결하는 등 창원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로 하면 된다.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창업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창업 컨설팅으로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의 사업역량 강화로 준비된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지원 등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창업준비자와 초기 창업자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에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호/기자



정읍시, 외식 업소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호응’

컨설팅 통해 경영방식 개선, 업소별 5~20% 이상 매출 신장

정읍시가 소규모 외식 업소들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외식 업소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받고 마무리됐다.

시는 영업 부진을 겪고 있는 외식 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난 13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지원사업은 영업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외식 업소의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컨설팅은 각 업소의 음식 맛과 메뉴 편성, 서비스 수준, 경영 상태, 인테리어 등을 분석하는 내부환경 진단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와 성장 가능성, 지역 상권 등 외부환경진단까지 세심하게 점검해 만족도를 크

게 높였다. 또한, 외식업은 홍보마케팅이 중요한 업종인 점을 감안해 홍보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와 방법들을 제공함으로써 점주들의 경영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전문 컨설턴트가 주기적으로 현지 업소를 방문해 음식점별로 조리 방법과 메뉴 개발, 홍보마케팅, 경영마인드 등 기술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를 통해 경영방식을 개선한 결과 각 업소는 기존의 월평균 매출보다 5~20% 이상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시는 이들 업소의 지속적인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음식점과 컨설팅 전문가를 멘토링 관계로 연결해 필요시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음식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외식사업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업주의 경영마인드 개

선과 자신감 회복으로 영업점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라디오스타’ 이적X정인X폴킴X샤이니 키, 가수라 참

다행인 4인이 완성한 토크+무대 맛집 찬 바람 싸늘한

‘라디오스타’를 찾은 이적, 폴킴, 정인, 샤이니 키 아주 나이스한 꼴조합이 찬바람이 싸늘해진 늦가을 밤과 어울리는 무대, 토크 맛집 시간을 완성했다.본업 천재들이 꾸민 무대는 감탄과 힐링을 부르며 시청자들의 감성을 충족하게 적었고 고민도 일상도 유쾌하게 들려주는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토크는 기분 좋은 웃음을 선사했다.지난 11일 방송된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명품 보컬 4인방 이적, 폴킴, 정인, 샤이니 키와 함께하는 ‘가수라 다행이다’ 특집으로 꾸며졌다.‘가수라 다행이다’ 특집은 가수이자, 아버지이자 엄마 그리고 새 출발을 앞둔 4인이 들려주는 재밌고 웃프고 때때로 듣는 이들의 마음마저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사람 냄새나는 수다로 채워진 시간이었다.‘가수라 다행이다’ 특집 명에 걸맞게 본업 천재들이 꾸민 무대와 짝맞게 들려준 노래 소절은 시청자들을 늦가을 밤 감성에 푹 젖어 들게 했다.스페셜 MC로 돌아온 차태현은 한결같이 곁에 있었던 것 같은 특유의 편안하면서도 위트 있는 진행 실력으로 3MC와도 잘맞 호흡을 맞추며 꿀잼 화력을 더했다.‘역시 차태현’이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예능감도 만렙인 가수 이적은 딸바보 아빠의 매력을 보여줬다.이적은 “좋아하는 가수를 모두 적으라는 문항에 딸이 첫 번째는 아이유를,

두 번째는 아빠인 제 이름 ‘이적’을 적었다”며 딸바보 아빠의 행복한 일상을 공개했다.또 둘째 딸의 재능과 아빠를 유절하게 만든 어른스러운 편지 내용을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이어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모두를 위로하는 곡 ‘당연한 것들’ 탄생 비화와 짝막 라이브까지 선보인 이적은 첫눈에 반해 작업하고 싶었다던 정인과의 듀엣곡 ‘비포 선라이즈’ 무대를 꾸며 감동을 안겼다.마치 CD를 듣는 거 같은 두 사람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두 아이의 엄마 정인은 남편 조정치의 등만 쓰다듬었을 뿐인데 둘째가 태어났다고 성스러운 스킨십의 정체를 공개, 둘째 탄생 비결을 밝혔다.또 수중분만 로망을 실현하면서 산모인 자신보다 남편 조정치의 발 관리에 신경 썼다고 털어낸 웃음을 안겼다.육아를 하며 틈틈이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는 정인은 청아한 보이스로 마음의 힐링을 주는 자정가를 들려줬다.말을 향한 따뜻하고 예쁜 마음이 담긴 가사는 MC 안영미는 물론, 시청자들의 마음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고막 남친 폴킴은 ‘노잼 이미지’ 오해를 벗고 영풍 예능감을 뽐냈다.스스로 “나 천재?”하고 감탄할 때가 많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차트 1위를 차지하고도 유리장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공개



해 시선을 모았다.연기를 배우고 있다는 폴킴은 “상황을 몸으로 표현하거나 동물 연기를 배우고 있다”고 직접 연기에 도전했다.폴킴의 미어캣 빙의 연기에 MC들은 “AI 같다”는 냉정한 평을 날리며 폭소를 자아냈다.또 감성 가득한 ‘편지’ 라이브 무대로 매력을 대방출했다.전역 후 다시 팬들 곁으로 돌아온 키는 군 생활 비화를 대방출, 예능돌다운 막강 입담을 과시했다.키 “군대가 제일 쉬웠다”며 규칙적이고 단순한 매력이 있는 군대 예찬론을 펼쳤다.또한 “헤리, 태연, 보아, 박나래 씨가 면회를 왔는데 면

회 인증샷을 올리면 반응이 달라졌다”며 부러움을 샀던 에피소드도 공개했다.방송 후 시청자들은 “오늘 대박, 이적 폴킴 정인 키에 차태현 MC 정말 자잘가까지, 모든게 완벽했다” “이적 정인 노래에 푹 빠져들었다” “폴킴 노래 또 듣고 싶네요” “키 재밌게 말하 너무 잘하네요” “차태현,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어 좋았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다음 주 라디오스타는 박미선, 바다, 헨리, 재재 이색 조합과 함께하는 ‘랜선 친구들’ 특집이 예고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순희/기자

‘동네투톱’ 오는 11월 21일 SK브로드밴드 지역채널 1번 첫 방송

기본 가게 나이 30살 ‘노포’ 동네 라이벌 맛집 배틀 프로그램

자타공인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연예계 선구배 팬현숙과 이특이 기본 가게 나이 30살의 동네 ‘노포’ 라이벌 맛집 배틀 프로그램인 ‘맛있는 전쟁-동네투톱’의 MC로 확정됐다.13일 SM C&C STUDIO A에 따르면 ‘맛있는 전쟁-동네투톱’의 MC로 팬현숙과 이특이 이미 지난달 첫 촬영을 마쳤다. SM C&C STUDIO A가 제작하는 ‘동네투톱’은 기본 가게 나이 30살 이상의 오리진널 동네 ‘노포’ 라이벌 맛집을 찾아 배틀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유쾌한 프로그램의 내용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속 조치까지 생각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우선 MC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팬현숙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칠전팔기 장사 스토리를 기반으로 최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종합무진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그녀는 순대국밥집부터 시작해 여러 개의 식당 사업을 32년째 하는 중으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요리 국가공인기술자격증 보유해 ‘동네투톱’에 최적화된 MC로 캐스팅됐다.자타공인 한국의 차세대 MC로 자리잡은 슈퍼주니어의 이특은 요리프로그램인 ‘최고의 요리 비결’을 3년 6개월 동안 진행하며 다년간 요리지식을 갖고 닭야 ‘이특의 특별한 식사’라는 요리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전세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멤버이자 특별하고 센스 있는 입담의 소유자로 ‘동네투톱’의 MC로 그가 보여줄 활약이 기대되는 바다.팬현숙과 이특이라는 투톱 MC를 내세운 ‘동네투톱’은 타 음식 프로그램들과 확실한 차

별성을 확보했다.기본 가게 업력 30년 이상으로 동네에서 라이벌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많은 손님들을 보유하고 있는 ‘노포’들의 맛과 노하우 등을 다루기 때문. 특히 MC들의 유쾌한 입담과 금이 다른 군침도는 음식의 향연으로 예능적인 재미를 쟁긴다면, 더 나아가 이들 노포들을 위한 커머스 전략이 더해져 소상공인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한다라는 취지를 담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무엇보다 다양한 OTT, 방송국과 손을 잡고 콘텐츠를 제작하며 공급해왔던 SM C&C STUDIO A가 이번에는 SK브로드밴드와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SM C&C STUDIO A는 wavve를 비롯해 유튜브, 네이버 V LIVE, 네이버 TV, Seez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OTT 경험을 주무기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공식 채널에서 오리진널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 시청자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광수/기자



남자친구.는.있으세요?

충격 제보 카메라가 꺼진 뒤 드러난 ‘국민 남편’의 실체

‘바람피면 죽는다’ 국민 남편의 충격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이혼 전문 변호사 ‘한우성’으로 분한 고준이 인터뷰가 끝난 후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미녀 리포터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눈길을 모은다.이혼 전문 변호사의 프로페셔널함과 ‘국민 남편’의 스윗한 미소 뒤 숨겨진 ‘한우성’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은 보는 이들에게 뭉개어오는 배신감과 반전의 통쾌함을 동시에 안겨준다.오는 12월 2일 첫 방송 되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측은 11일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국민 남편 한우성의 충격 실체가 담긴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티저 영상 속 우성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미녀의 리포터와 1대 1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성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이혼소송은 증거 싸움이다.무엇보다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며 친구이자 스윗한 모습으로 당부의 이야기를 전한다.인터뷰가 끝난 후 ‘국민 남편’ 우성은 감춰둔 검은 속내를 드러낸다. 영상 속 그는 미녀 리포터의 칭찬

에 냉큼 “끝나고 뭐 하세요?”며 자신과 저녁을 함께할 것을 제안하고 “남자친구.는.있으세요?”며 끊임 없이 ‘추파’를 던져 충격을 안겨준다.그의 꺼질 줄 모르는 ‘그린라이트’는 보는 이들에게 배신감을 끌어오르게 만드는가 하면 미녀 리포터의 ‘원천봉쇄’ 철벽 대응에 아쉽게 돌아서는 그의 모습은 묘한 통쾌함까지 선사해준다.‘바람피면 죽는다’ 제작진은 “티저 영상은 이혼 전문 변호사 한우성의 두 얼굴을 보여준다 ‘바람을 피우는 국민 남편’ 한우성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재치 있게 담고자 했다”며 “고준 배우는 상황에 딱 맞는 목소리와 표정,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순발력과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줘 현장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드라마 속 그의 유쾌하고 코믹한 매력을 기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조여정과 고준의 아찔한 ‘킬링 케미’로 기대를 모으는 ‘바람피면 죽는다’는 ‘닝쿨벳 내 인생’ ‘황금빛 내 인생’ 등 연출력을 뽐낸 김형석 PD와 지상과 첫 시즌제로 큰 사랑을 받았던 ‘추리의 여왕’의 이성민 작가가 기가투합해 화제를 모았다.이 밖에도 김영대-연우-



송옥숙-정상훈-이시연-김예원-홍수현-오민석 등 화려한 연기자 군단이 캐스팅돼 2020년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힌다. ‘바람피면 죽는다’는 온라인 방송

영화 플랫폼 웨이브가 투자에 참여했으며 본 방송과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웨이브 독점으로 VOD가 제공될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우리가 지켜 보고 있다

‘조여정♥고준’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에서 함께할 공식 서포터즈 ‘와칭유’를 모집한다. ‘바람피면 죽는다’를 함께 ‘와칭’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자신만의 콘텐츠로 만들어 기획, 제작 역량을 뽐낼 기회와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KBS 2TV ‘바람피면 죽는다’ 측은 11일 KBS 2TV 공식 SNS를 통해 ‘바람피면 죽는다’의 서포터즈 ‘와칭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조여정과 고준의 아찔한 ‘킬링 케미’로 기대를 모으는 ‘바람피면 죽는다’는 ‘닝쿨벳 내 인생’, ‘황금빛 내 인생’ 등 연출력을 뽐낸 김형석 PD와 지상과 첫 시즌제로 큰 사랑을 받았던 ‘추리의 여왕’의 이성민 작가가 기가투합해 화제를 모았다.이 밖에도 김영대-연우-송옥숙-정상훈-이시연-김예원-홍수현-오민석 등 화려한 연기자 군단이 캐스팅돼 2020년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힌다. ‘바람피면 죽는다’의 공식 서포터즈 ‘와칭유’는 드라마 속 범죄 소설가 아내 강여주와 ‘바람피면 죽는다’는 각서를 쓴 이혼 전문 변호사 남편 한우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시청자에게 더욱 재밌게 드라마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한다.선정된 ‘와칭유’ 서포터즈에게는 직접 콘텐츠를 기획, 제작, 홍보하는 등 잠재된 콘텐츠 역량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제공하며 활동 종료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또한 ‘바람피면 죽는다’ 관련 각종 이벤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서포터즈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이들에게는 서포터즈 활동 인증서를 수여한다.오는 11월 23일을 시작으로 드라마 종영 시까지 약 두 달간 활동을 펼칠 서포터즈 ‘와칭유’는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단, 본인이 활발하게 운영 중인 SNS, 블로그, 유튜브 등 홍보 채널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 자정까지로 홍보 채널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제시된 미션과제를 자신의 홍보 채널에 업로드 후 공지된 메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KBS 2TV 공식 SNS의 ‘와칭유’ 서포터즈 모집 안내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은/기자

서포터즈모집안내
11.11(수)~11.17(화) 자정까지

서포터즈 '와칭유' 신청방법

- 지원 자격**
 - 바람피면 죽는다'를 시청하는 19세 이상 청소년
 - SNS, 블로그, 유튜브 등 한 가지 이상 홍보 채널을 가진 분
- 지원 미션**
 - 작성: 자칭/타칭(자유 형식)
 - 작성: '바람피면 죽는다' 홍보원칙 1건
- 지원 방법**
 - 1.신청: 11월 11일 자정 이후부터 11월 17일 자정까지
 - 2.신청처: KBS 2TV 서포터즈 모집안내 게시글
 - 3.신청방법: SNS, 블로그, 유튜브 등 한 가지 이상 홍보 채널을 운영 중인 SNS, 블로그, 유튜브 등 홍보 채널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활동 기간 및 내용**
 - 활동 기간: 2020년 11월 23일 - 드라마 종영 시까지
 - 바람피면 죽는다' 온라인 방송 시 시청률 1위 달성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활동 혜택**
 - 바람피면 죽는다' 관련 행사에 초청될 수 있음
 - 바람피면 죽는다' 관련 행사에 초청될 수 있음

‘내 마음은 환불 불가’

‘놀면 뭐하니?’ 환불원정대, 아직 끝나지 않은 9회말 2아웃

이번 주 MBC ‘놀면 뭐하니?’에서는 환불원정대와 신박기획이 공식 마지막 스케줄로 야구장을 찾은 모습이 공개된다.끝나지 않은 9회말 2아웃의 ‘만루 홈런’ 같은 환불원정대의 ‘DON'T TOUCH ME’ 무대와 시구-시타 이벤트 등 마지막까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줄 예정이다. 오는 14일 방송되는 MBC ‘놀면 뭐하니?’에서는 ‘굿바이 환불원정대’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된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환불원정대 만옥, 천옥, 은비, 실비가 대전에 있는 한 야구장을 찾아 관객들과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위해 ‘DON'T TOUCH ME’ 무대를 펼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환불원정대는 자신들의 초청 공연 소식을 듣고 찾아와준 많은 팬들과 관객들의 응원을 받으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을 했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신박기획 측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이어 프로야구 선수들과 관중분들이 계시는 야구장을 찾았다.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라운드에서 선 선수들과 응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환불원정대’의 에너지와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특히 환불원정대는 ‘DON'T TOUCH ME’ 무대와 함께 ‘시구-시타’ 이벤트에도 참여했다.시구자에는 은비가, 시타자에는 천옥이 나서 관중들과 경기를 기다리는 시청자에게 재미를 선사했다.신박기획에 따르면 시구자와 시타자는 현장에서 바로 결정됐다고. 이에 신박기획 대표 ‘지미 유’는 숨겨왔던 야구 실력을 뽐내며 시타자 천옥에게 야구 방망이를 쥐는 법과



시타 자세를 알려주는 등 ‘일타 강사’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전언이다. 또한 ‘DON'T TOUCH ME’ 무대 후 야구단 측에서 준비한 유니폼에는 센스 넘치는 이름과 넘버가 새겨져 있어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는 후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야구장에서 무대를 펼친 환불원정대의 모습과 이를 지켜보는 신박기획 식구들,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마친 이들의 마지막 작별 모습은 어땠을 지 오는 14일 방송되는 ‘놀면 뭐하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은/기자